

# 學術 集談會

## 『看羊錄』으로 풀어보는 韓日 關係

- 日時 : 2019年 8月 6日(火) 16:00~18:00
- 場所 : 慶熙大學校 靑雲館 619號
- 主催 : 東아시아古代學會·韓瑞大學校 人文都市事業團
- 後援 : 韓國研究財團

※ 이 행사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추진됩니다.(NRF-2018S1A6A6062488)

東아시아古代學會·韓瑞大學校 人文都市事業團 共同主催  
學術集談會

“『看羊錄』으로 풀어보는 韓日 關係”

◎ 16:00~16:10 開會式

靑雲館 619號

司會: 高南植(大眞大學校)

-여는 말씀: 安永勳(東아시아古代學會 會長)

-인사 말씀: 安外順(韓瑞大學校 人文都市事業團長)

◎ 16:10~17:20 主題 發表

座長: 安外順(韓瑞大學校)

【『看羊錄』 本文 읽기】

-安永勳(慶熙大學校): 『看羊錄』 어떻게 읽을 것인가.....3p

【『看羊錄』 時代 읽기】

-宋浣範(高麗大學校): 『看羊錄』의 시대적 배경과 한일 지식인의 교류.....7p

【『看羊錄』 交流 읽기】

-岡山善一郎(日本 天理大學校): 『看羊錄』 研究 -藤原惺窩와의 관계를 중심으로-.....11p

◎ 17:20~18:00 集談

-參席者 全員

◎ 18:00~ 晚餐 및 懇親會

# 『看羊錄』어떻게 읽을 것인가

安永勳(慶熙大)

## 目次

1. 『看羊錄』어떻게 읽어왔나
2. 『看羊錄』어떻게 읽을 것인가

### 1. 『看羊錄』어떻게 읽어왔나

『看羊錄』은 朝鮮時代 睡隱 姜沆(1567~1618)이 쓴 捕虜實記이다. 이 한 권의 책은 丁酉再亂 때 鄉里인 全南 靈光에서 가족과 함께 倭軍에 被拉되어 햇수로 4년, 만으로 2년 8개월을 敵地에서 進退하다 生還한 체험과 상세한 敵情을 담고 있어 그동안 斯界의 비상한 관심을 끌어들였다.

강항과『看羊錄』에 대한 연구는 그 극적인 삶과 풍부한 문장으로 인해 다양한 조명을 받아왔는데, 기존의 성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sup> 우선 강항을, 조선의 선비로서 비록 포로의 몸이 되었지만 상황에 굴하지 않고 끝내 귀환한 의지를 높이 사서 忠節의 인물로 숭상하고『看羊錄』또한 그러한 기록물로 보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바탕에서 1980년에는 텔레비전 드라마 ‘간양록’(신봉승 극본)이 방영되고, 그 주제가(조용필)가 인구에 회자되기도 했다. 2001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강항을 ‘3월의 문화인물’로 선정 발표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내 고장 인물 찾기’ 사업에 힘입어 최근 여러 행사가 펼쳐지기도 했다. 2010년 4월 30일에는 전남 영광군에서 『수은 강항과 내산서원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모두 4편의 논문이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학회지에 실렸다.<sup>2)</sup> 2019년 6월 19일에는 일본 교토 龍谷大學에서 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가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sup>3)</sup> 이러한 국내외 대중문화, 민관 합작 행사는 강항과『看羊錄』의 내용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강항이 일본에서 교류한 인물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 1561-1619년)와의 관계

- 1) 관련 논저가 40여 건 보고되어 있는데, 짧은 지면에서 선행 연구를 일일이 밝히지 않고 대체적인 흐름만 언급한다.
- 2) 『도서문화』35집, 2010. 6. 내용은 강항의 생애와 저술, 강항과 17C 호남문학, 강항이 일본 주자학에 끼친 영향, 강항과 내산서원 콘텐츠 활용 등.
- 3) 발표는 (社) PEACE ROAD in Ehime 혼마루 라디오방송 사토 회장, 천리대학 岡山善一郎 교수의 ‘『간양록』 연구-藤原惺窩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광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김덕진 교수의 ‘수은 강항의 제자와 그 활동’.

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비록 포로와 적국의 승려로 만났지만 두 사람의 교류는 인간적인 신뢰를 갖추고 있었고 학문적인 소통도 이루어져 일본의 근세 유학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남긴 글에 그 증좌가 있어 우호적 교류는 사실이지만 일본 유학사에 강항이 기여한 정도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존재한다.

『看羊錄』은 국문학계에서 일찍부터 포로실기 문학으로 주목을 받았고 연구 성과도 상당한 편이다. 포로 체험을 생생히 전하는 르포문학으로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졌는데, 최근 연구들은 보다 세밀한 지점으로 나아가고 있다. 초기에는 그 속에 담긴 지식, 정보에 치중하고 교류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서술 과정과 방식, 작자의 의식 층위에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 부정적인 경험을 치유하는 글쓰기로서 접근한다든지, 자기방어기제의 작동으로 선택적 기술을 하고 있다든지, 披擲가 失節이라는 시선에 대응하는 자기정당화의 글쓰기 등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것은 『看羊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기보다는 여타 포로실기에도 해당하는 사안이라서 앞으로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看羊錄』의 내용 대부분이 조정에 올리는 보고서의 公文 형식이므로 적국에 대한 정보 사이, 행간에서 강항이 드러내고자 했던 의도와 의미를 찾는 것도 극한상황에 처한 인간의 고뇌와 대응, 나아가 보편적인 인간 이해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2. 『看羊錄』어떻게 읽을 것인가

『看羊錄』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賊中封疏」, 「賊中聞見錄」, 「告俘人檄」, 「詣承政院啓辭」, 「涉亂事迹」. 이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글에서 몇 대목 발췌해서 읽어본다.<sup>4)</sup>

「賊中封疏」

○선무랑(宣務郎) 전 수형조좌랑(守刑曹佐郎) 신(臣) 강항(姜沆)은 목욕재계하고 백 번 절하여 서(西)로 향해 통곡하면서, 삼가 정륜입극 성덕 홍렬대왕 주상 전하(正倫立極盛德弘烈大王主上殿下)께 상언(上言)하옵니다.

- 상소의 서두로 형조좌랑 관인으로 임금께 바치는 글임을 명시. 이후 정유년 피납 상황을 적는데 군량 운반을 맡았다가 완수하지 못한 일, 의병 모집했다가 실패한 일.

○ 신이 어쩔 수 없이 배에다 아비·형·아우·처자를 싣고 서해를 따라 서쪽으로 올라갈 계획을 했었는데, ... 갑자기 적의 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이 벗어나지 못할 것을 깨닫고서 나머지 가족(家屬)과 함께 바닷물 속으로 떨어졌으나, 해안의 수심이 얕아 모두 왜놈들에게 잡히게 되고, 오직 신의 아비만이 혼자 다른 배를 잡아타 모면했을 뿐, 분호조(分戶曹) 곡식을 모집한 공명첩(空名帖) 수백 통이 모두 물 속에 침몰되었습니다. 직무 수행을 형편없이 하여 위로 조정을 욕되게 하였으니, 더욱 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 자결 미수와 직무 미수에 대한 죄.

○ 적은 신이 사족(士族)임을 알고서 신과 형·아우를 일제히 선루(船樓)에 결박하고, 배를 돌려 무안현(務安縣)의 한 바다 모퉁이로 끌고 갔습니다. ... 이곳에 당도해 보니 우리나라 남자

4) 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총서 79 『국역 해행총제』 II, 「간양록」, 1977(한국고전번역원 DB)

와 여자로 전후에 사로잡혀 온 사람이 무려 천여 명인데, 새로 붙잡혀 온 사람은 밤낮으로 마을 거리에서 떼지어 울고 있으며, 먼저 온 사람은 반쯤 왜 사람에게 귀화하여 돌아갈 생각이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신이 넌지시 탈출하여 서쪽으로 달아나자고 깨우쳐 보았으나 호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 사족이라 죽음을 면함. 이후 일본으로 압송되어 몇 차례 탈출 시도하나 모두 실패. 포로의 반은 귀화.

○ 나이 60 남짓 되어 보이는 왜승(倭僧) 하나가 ... 가만히 신등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내막을 고하자 그 중이 슬피 여기며 몇 번을 탄식하더니 신 등을 풍후(豊後)까지 배로 건너 주겠다고 허락하였습니다. ... 금산(金山) 출석사(出石寺)의 중 호인(好仁)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자못 문자(文字)를 해독하였습니다. 신을 보고 슬프게 여겨 예우가 남보다 더했으며, 따라서 신에게 그 나라 제판(題判) 관청에서 백성이 올린 소장(訴狀)에 쓰는 판결(判結)을 보여 주었는데, 방여(方輿)와 직관(職官)을 빠짐없이 다 기록한 것이기에 신이 곧 등사하였습니다.

- 유독 승려의 호의를 기록함. 그들이 문자를 알고 그들을 통해 지식 정보를 얻음. 뒤에 후지와 등도 마찬가지. 상소 뒤에 붙인 <倭國八道六十六州圖>에서도 객관적인 지리 정보 사이에 제공자에 대한 기록. 대부분 승려임. 문자를 안다. 유식하다. 시를 창수하다 등. 성정과 역사, 시대 인식에서도 보통 왜인과 다르다는 평. 신뢰를 보임.

○ 아아, 전투에 실패한 장수도 오히려 용맹을 말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신은 사로잡혀 적의 소굴에서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처지로서, 문득 감히 붓대를 놀려 조정 정책의 득실을 논한다는 것은 극히 참람한 일로서 죄를 면할 길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사람은 시간(尸諫)을 한 사람도 있고, 죽음에 임박해서도 계책을 올릴 것을 잊지 아니한 사람도 있으니, 진실로 국가에 조금이라도 이익될 일이 있다면 또한 죄인이라 하여 끝내 말하지 않는 것도 불가하옵니다.

만 리(萬里) 경해(鯨海)의 밖이고 구중 궁궐의 안인지라, 혹은 이 왜노들의 간위(奸僞)를 자세히 살피지 못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후 사신의 내왕에 있어서도 다만 가고 오기가 바쁠 뿐 아니라, 경계와 금제가 엄밀하여 얻은 것이 혹은 상세하게 구비되지 못할 수 있을 것이요, 사로잡혔다가 탈출한 사람들 또한 맹레(氓隸 하천배)의 무리로서 속맥(菽麥)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많아, 듣고 본 것이 혹은 정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감히 체면 무릅쓰고 기록하되, 왜승(倭僧)의 제판(題判) 가운데 왜의 언서(諺書)로 쓴 곳을 신이 직접 우리나라 언서(諺書)로 등주(臚注)하여, 첩인(諜人)의 탐간(探聞)과 투항한 왜의 추문(推問)에 있어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 차질이 없어 이 글이 예감(睿鑑)의 아래 도달된다면, 일본이란 나라가 비록 동떨어진 바다 밖에 있을지라도, 이 왜노들의 간담(肝膽)이 팔채(八彩)의 앞에 환히 나타날 것이니, 갖은 방법으로 사기를 부리는 추한 놈들이지만, 반드시 만 리 밖을 환히 내다본다 하여 신(神)으로 여기게 될 것이며, 국가의 방어하고 대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털끝만큼이나마 보익됨이 없지 아니할 것입니다.

- 극한 상황 생존의 위기에서 국익을 위한 활동으로 나아감. 기존 정보와 차별화. 향후의 소용도 명시.

○ 더구나 신은 한남(漢南)의 선비로서 과거에 급제하여, 직질(職秩)은 비록 하급이고 이력은 비록 얇으나, ... 이마로부터 발뒤축까지 모두 천지 같은 조화로 만물을 생성해 내는 큰 덕택

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티끌만큼도 보답하지 못하고 갑자기 머나먼 지역의 견양(犬羊) 같은 놈들의 소굴에 빠져 있으니, 하루라도 구차하게 사는 것이 그 죄가 만 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 돌이켜 생각하면 일시에 이름을 없애버리고 마치 저 구둑(溝瀆)에서 스스로 목매어 남 모르게 죽는 사람과 같게 되어, 위로는 능히 충절(忠節)을 세워 국가에 보답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분명하게 죽음을 처리하여 영예스러운 이름을 남기지도 못하고, 어린 아이와 어리석은 부녀들과 함께 칼머리의 해골이 되게 되었으니,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하물며 사로잡혀서도 후사를 도모한 사람으로서 옛날의 충신 열사인 문천상(文天祥)·주서(朱序) 같은 사람도 모두 성공하지 못했지만, 전일의 사가(史家)들이 그르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절개를 온전히 한 것을 허여한 것은, 진실로 몸은 비록 사로잡혔을망정, 일찍이 사로잡히지 않은 절개가 오히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 신이 고루하고 용렬하여 비록 옛사람의 만 분의 일도 못 됩니다마는, 그 충성을 다하고 싶은 마음만은 옛사람에게 조금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 하물며, 추한 놈들의 정상(情狀)이 이미 신의 눈 안에 들어 있으니, 만일 하늘이 편리한 기운을 빌려주어 틈을 탈 기회가 생긴다면 곧 마땅히 변변치 못한 이 몸을 가지고 삼군(三軍)에 앞장서서 ... 수치를 씻고 ... 연옥(燕獄)의 쓰라림을 갚은 후에, 사패(司敗)의 처벌을 받아, 오늘날 구차하게 생활한 죄를 갚겠습니다. 이야말로 신이 한밤중에 칼을 만져보며, 하루면 창자가 아홉 번씩이나 뒤틀리고 있는 까닭입니다. ... 그 왜정(倭情)에 대한 기록과 적괴(賊魁)가 죽은 뒤의 간위(奸僞)를 기록하여 올리려 했던 것을 아래와 같이 아울러 기록하오니,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소신(小臣)의 구차히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아울러 그 말까지 버리지 마소서.

- 의미 없는 죽음 보다 국익을 위해 생존.

강항은 문과 급제한 유학자 관인으로서 당대 유학 지식과 시문 창작 능력을 갖추었다. 극한 상황에 처한 그에게 유일한 생존 도구는 그가 가지 지식과 글이었다. 피납시에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족의 복장을 하고 있어서이다. 그러나 술한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 자신으로서 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과 크나큰 절망감을 느꼈다. 비록 절제된 표현이지만 그의 다른 글 속에서 빈번하다. 왜국에 압송된 후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하고 생계를 도모할 때마다 왜승들의 조력을 받는다. 강항이 왜승과 교류한 것은 그들이 문자를 알고 정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력으로 강항은 적국의 중요한 정보를 얻는다. 이번에는 적국에서 탐지한 지식 정보가 강항을 살릴 방도가 된다. 강항은 그것을 십분 치밀하게 여러 차례 작성하여 조선 조정에게 올린다. 우여 곡절 끝에 강항의 상소는 임금에 전달되고 강항도 남은 식솔들과 귀환한다. 이후 강항은 복수의 대오에 나서지 않고 벼슬에도 나아가지 않고 향리에 은거해서 생을 마친다.

#### 【참고문헌】

- 民族文化推進會, 韓國文集叢刊 73 『睡隱集』, 1991  
 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총서 79 『국역 해행총재』Ⅱ, 「간양록」, 1977  
 강항 저, 이을호 역, 『간양록』, 서해문집, 2005  
 李塚衍, 『壬辰倭亂 捕虜實記 研究』, 박이정, 2008  
 한국고전번역원 DB

※ 현재의 한일관계를 포함한 동아시아세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위태하다. 온종일 뉴스는 무역의 면이긴 하지만 전쟁이니 보복이니 의병이니 평상시에는 듣기 어려운 거친 언사가 가득하다. 한일 양국의 정치가들은 국내 정치로 환산될 지지표 계산에 바쁜 듯하다. 이러한 시기에 한서대 인문도시사업단의 지원을 얻어 동아시아고대학회는 비극적인 전란 속에 벌어진 한일 간의 인간 교류를 통한 역사 화해의 기초를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는 언젠가 견힐 먹구름 이후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숨고르기일 것이다.

## 『看羊錄』의 시대읽기 :

### 『看羊錄』의 시대적 배경과 한일 지식인의 교류

宋浣範(高麗大學校)

#### 目次

1. 동아시아의 전쟁
2. 임진/정유왜란
3. 강항과 간양록
4. 후지와라 세이카
5. 전쟁과 교류의 흔적
6. 소결

### 1. 동아시아의 전쟁

○7세기(663년)의 백(춘)강싸움: 신라/당 vs 백제/왜/고구려

→전장은 한반도 서해안, 새만금유역

⇒당, 발해/신라, 일본

○16세기(1592~98년)의 임진/정유왜란: 조선/명 vs 일본

→전장은 한반도 전역

⇒명(청), 조선, 도요토미시대(도쿠가와막부)

○19세기(1894~95년)의 청일전쟁: 조선/청 vs 일

→전장은 한반도 서해안을 시작으로 전역

⇒청(중화민국), 조선(식민지), 일본(제국주의)

### 2. 임진/정유왜란(1592~98년)

○임진92/정유97왜란; 文祿/慶長の役; 万歴の役; 7년 전쟁

-自倭亂朝鮮七載，喪師數十萬，糜餉數百萬，中朝與屬國迄無勝算，至關白死而禍始息。(『明史·朝鮮傳』)

-耳塚

-도자기전쟁

-포로전쟁

### 3. 강항(姜沆)과 간양록

○임진/정유왜란 때의 피로인들이 남긴 실지 체험 기록물; 강항 『간양록』, 정희득鄭希得 『月峰海上錄』, 노인魯認 『錦溪日記』, 정호인鄭好仁 『丁酉避難記』, 정경득鄭慶得 『湖山公萬死錄』 등

○姜沆(1567년 명종 22년~1618년 광해군 10년)

전라도영광군불갑면유봉리에서 부친 극검克儉, 모친 영동 김씨 사이에 탄생  
7세에 『맹자』를, 8세에 『통감강목』을 통달

16세에 향시, 22세인 1588년(선조 21년)에 진사시, 27세 1593년 문과에 급제

17세 때 부터 교서관 박사, 성균관 전적 등을 거쳐

30세인 1596년에는 공조와 형조의 좌랑 역임

31세 1597년 봄 고향에 있던 중 정유재란, 남원에서 명군 군량미 종사관, 의병

1597년9월24일 도도 다카토라(藤堂高虎) 군에게 체포→對馬島와 壹岐島

→四國의 伊豫→大阪→교토의 伏見로 이송

여섯 차례 탈출 시도

후시미→대마도→1600년5월19일 부산(햇수로 4년, 정확하게는 2년8개월 만의 귀국)

○『看羊錄』; (公的)적지에서 탐문한 일본의 정세와 각종 정보 등을 기록한 「賊中封疏」(강항이 일본의 지리 및 지세, 관호, 군제, 형세 등을 기록하여 선조에게 올린 글), 「賊中聞見錄」(일본인과의 친교를 통해서 알게 된 일본의 실정을 기록. 여기에는 '왜국백관도', '왜국팔도육십육주', '임진·정유에 침략해 온 왜장의 수효' 등), 「告俘人檄」(조선으로의 귀환이 결정된 뒤 대마도에 도착하여 남아 있던 조선 포로들에게 보내는 격문, 일본에 대한 적개심), 「詣承政院啓辭」(귀국하고 왕에게 적의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올린 글)로 보고문 성격을 띤 기사체로서 기록성이 중시, 적중에서 탐지한 각종 정보를 조정에 알려야 하겠다는 목적의식이 우선시

(私的) '피로일기'로서의 개인적인 체험기록인 「涉亂事迹」(자신의 포로체험을 일기 형식으로 적은 글로 군데군데 시(詩)가 섞여 있어 강항의 정서적인 면, 포로로 잡히는 상황에서 아들과 딸을 잃어버리는 참담함, 부단한 탈출시도, 강항 형제의 자녀 여섯 명 중 세 명은 바다에 빠져 죽고, 두 명은 병사하여, 작은 딸 하나만 남게 되는 피로 생활의 비참함, 板島城 성문에다 장문의 회개문을 써 붙이고 豐臣秀吉이 죽자 그의 사당에 풍자시를 지어 붙이는 불굴의 충의정신 등)으로 문학성

#### 4.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 1561-1619년) ; 강항과의 관계 및 일본 지식인에 대한 인식은 간양록 속의 「賊中見聞錄」에, 후지와라 세이카는 불교의 선승(禪僧) 출신으로 일본 근세 유학, 혹은 주자학의 개조(開祖)라 평가

○“근세 초두의 유학자. 이름은 슈쿠(肅)이고 字는 렌푸(斂夫), 세이카(惺窩)는 그의 호(號)이다. (중략) 7, 8세 무렵 삭발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교토 쇼코쿠사(相國寺)에서 禪學에 매진하였다. 명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자, 임진·정유재란 때의 포로인 주자학자 강항과의 만남을 거쳐 30대 후반에는 유학자의 입장을 확립. 하야시 라잔(林羅山)이 기록한 행장에 의하면, 1600년(慶長 5년), 유자(儒者)의 복장인 심의(深衣) 도복(道服)을 착용하고 이에 야스(家康)에게 알현하였다.”(『日本思想史辭典』의 「후지와라 세이카」)

○후지와라라는 30세 때에 이미 조선의 사절단과 사귀었으며, 특히 書狀官인 허성(許箴, 1548-1612)이라는 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사귀었다. 허성이 쓴 문장과 시가 세이카문집(惺窩文集)에 실려 있기도 하다. 이 허성이라는 유학자는 1590년 통신사(通信使)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다녀온 인물인데, 1590년이라고 하면 조선에서 약 150년 만에 파견된 조선 통신사(通信使)가 일본을 방문한 때이고, 이때의 정사는 황윤길(黃允吉, 1536-?), 부사는 김성일(金誠一, 1538-1593)이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상기해 볼 때, 후지와라가 강항을 만나기 몇 년 전(1590년)부터 조선의 유학자와 교류하였고, 조선에서 유입된 서적을 읽었음이 확인

○강항과의 교제 이전에 벌써 중국 유학사에 대한 식견과 현재 일본의 학술 상황에 대한 명료한 관점의 소유자, 세이카의 유학은 한대와 당대의 유학뿐 아니라, 宋學(=주자학)도 포함한 것이었으며, 특히 한당의 훈고학을 비판하면서 송학에 대해서는 매우 친밀감

#### 5. 전쟁과 교류의 흔적

○강항의 평가: 송유(宋儒)의 리학(理學)뿐만 아니라, 송대(宋代)의 육象山(陸象山)이나 명대(明代) 양명학의 창시자 왕수인(王守仁)에 대해서도 상당한 식견

○강항 자신이 慶長4년(1599)에 쓴 「문장달덕강서(文章達德綱敍)」의 한 구절에서 “주돈이(周敦頤).이정(二程).장재(張載).주희(朱熹).육구연(陸九淵).허형(許衡).오여필(吳與弼).설선(薛瑄).호거인(胡居仁).진헌장(陳獻章).왕수인(王守仁) 등의 성리(性理) 제서에까지 관철하고 치달리며, 생각을 꿰뚫고 명료하게 분석하지 아니함이 없다. 일체 천리(天理)에 확충하고 흐트러진 마음을 거둬들임으로써 학문의 근본으로 삼았다.”라고 기술하고 있듯이 후지와라 세이카의 송명대(宋明代) 사상, 즉 주자학과 양명학에 대한 깊은 견식을 평가

○강항과 후지와라 세이카의 관계

-강항이 아래와 같은 시문(詩文)을 짓는다.

가지각색의 고운 꽃 아름다운 풀 잘 몰라도, 봄철에 아롱아롱 피어올랐네. 님이 계신 명월

루에 부칠 수만 있다면, 먼 곳에 있는 내 마음을 닮은 행여 아시려나.

→이것은 강항이 포로의 몸이 되어 적국(敵國) 일본에서 느끼는 감회를 읊은 시(詩)로 봄에 활짝 피어오르는 봄꽃을 보면서 자신의 조국인 조선의 임금에게 자신의 충절(忠節)을 표현한 시(詩)라고 할 수 있다.

-후지와라 세이카는 화답의 시로서 한 수를 짓는다. 거기에는 비록 적국의 지식인이지만, 인간적 관계에 바탕을 둔 동학이자 학문을 받은 사람에 대한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 들어 있다.

가지가지 국화 빛이 알뜰히 엮혔으니, 이 분의 새 글씨 더욱 좋아 보이네. 가을 서리 맞았지만 높은 절의(節義) 내 알겠노라, 꽃을 보고 이르는 말 나의 스승 아닐쏘나.

→이 시(詩)에서 후지와라는 강항의 마음을 헤아려 위로하듯이 멋진 화답시(和答詩)로 소통하고 있다. 낯선 타국에서 포로의 신분인 친구이자 마음의 스승인 강항에게는 더없는 선물이었을 것이다. 후지와라는 새로 지은 강항의 시문을 보고 가을, 겨울을 지나 생기가 솟아나는 봄꽃과 그에 대한 비유하면서 절조를 봄꽃에 비유한 그 표현력에 감탄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구절의 '나의 스승(吾師)'이라는 표현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을 것이다.

## 6. 소결

○“여기서 이대로 죽어버린다면 완전히 무의미하게 자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醜奴(일본)의 정황은 이미 내 눈으로 보고 기록한 것이니 비상시에 대처하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선조에게 보낸 글에서 쓰고 있다.

○살아남은 자의 피맺힌 기록(贖罪意識)이 있었음에도 과연 그 교훈(克倭意志)은 잊히지 않고 되살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전란 속에 꽃핀 일방적 관계가 아닌 지식인 간의 상호 교류, 상호 존중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이는 현재의 험난한 한일 간을 생각할 때 양국 지식인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 【참고문헌】

民族文化推進會, 韓國文集叢刊(影印標點)73 『수은집(睡隱集)』, 1991

강항 저, 이을호 역, 『간양록』, 서해문집, 2005

강항 저, 김찬순 역, 『간양록: 조선 선비 왜국 포로가 되다』, 보리출판사, 2006

石田一良·金谷治 編, 『日本思想大系28 藤原惺窩·林羅山』, 岩波書店, 1975

子安宣邦 監修, 『日本思想史辭典』, ぺりかん社, 2001

하우봉, 「강항, 『간양록』」, 『한국사시민강좌 특집: 역사상 한국인의 해외 견문록』42, 2008

신현승, 「17세기 한 조선 지식인의 일본 인식-강항의 간양록을 중심으로-」, 『日本思想』17, 2009

# 『간양록』연구

- 藤原惺窩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岡山善一郎(日本 天理大學校)

## 目次

1. 들어가는 말
  2. 일본에 있어서의 선행연구
  3. 강항과 『간양록』
    - 3-1) 강항
    - 3-2) 『간양록』
    - 3-3) 일본에서의 『간양록』번역
    - 3-4) 舜首座(藤原惺窩)에 대한 기술
  4. 藤原惺窩와 일본에서의 강항
    - 4-1) 藤原惺窩
    - 4-2) 藤原惺窩와 강항
  5. 『조선왕조실록』과 『간양록』
  6. 맺는말
- 【부록】일본에서의 강항·『간양록』연구논저목록

## 1. 들어가는 말

수은(睡隱) 강항(姜沆)(1567~ 1618년)은 전라남도 영광군불갑면 출신으로 21세에 진사에 합격하고, 27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31세에 형조좌랑으로 있을 때, 정유재란이 일어나 왜군에 피납되어(1597년 9월 23일) 일본에서 억류생활을 보내다가 다행히 귀국한(1600년 5월 19일) 사람이다. 그의 2년 8개월간의 억류생활은 『看羊錄』에 기록하여 있는데, 그의 저서로서는 『睡隱集』, 『綱鑑會要』, 『綱鑑大成』, 『雲齋集』 등이 현존하고 있다.

『간양록』<sup>5)</sup>(1656년)은 강항이 일본의 여러 자료를 베끼고 들은 것을 적고 자신의 논평을 기술한 책인데, <적국에서 임금께 올리는 글(賊中封疏)>·<승정원에 나아가 여쭙는 글(詣承政院啓辭)>·<환란생활의 기록(涉亂事迹)>·<적국의 이모저모(賊中聞見錄)>·<포로들에게 알리는 檄文(告浮人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계(兪槩)(1607- 1664년)가 쓴 序文(1656년 가을)과 유순거(尹舜擧)(1596-1668년)가 쓴 跋文(1654년)과 함께 전해지고 있다.<sup>6)</sup> 일본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왜승 순수좌舜首座(藤原惺窩후지와라 세이카를 가리킴, 1561- 1619년)를 따라 글씨 품을 팔아서 은전을 얻었다(遂從倭僧舜首座, 備其書得銀錢)는 기술이 있다. 그리고 왜승의 부채에다, 또는 병풍에다가 시를 적어준 일들이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

한편 일본측 자료에서는 일본 근세·에도(江戶)유학·주자학의 開祖라고 불리는 藤原惺窩의 문집이나<sup>7)</sup>, 그의 문제 林羅山(하야시 라잔, 1583-1657년)문집<sup>8)</sup>에 기록된 스승 藤原惺窩의 행장

5) 본 연구에 있어서 텍스트는 『국역睡隱集』(향토문화총서제37집, 전라남도, 1989년, 원문은 영인본)으로 하였고, 看羊錄의 인용은 한국전문학연구원의 [http://db.itkc.or.kr/dir/item?itemId= BT#dir/ node?grpId= &it emId =BT&gubun=book&depth=3&cate1=N&cate2=&dataGubun =서지&d ataId=IT KC\\_BT\\_13\\_80A&upSeoji=ITKC\\_BT\\_1373A](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 e?grpId=&it emId =BT&gubun=book&depth=3&cate1=N&cate2=&dataGubun =서지&d ataId=IT KC_BT_13_80A&upSeoji=ITKC_BT_1373A)를 이용했다.

6) 李乙浩譯『海東諸國記·看羊錄』한국명저대전집, 대양서적, 1982년판, 참조.

등에는 강항에 대한 기술이 있으며, 강항이 남긴 글 「惺齋記」등에는 ‘朝鮮刑部員外郎’이란 직위까지 기입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주목을 끄는 것은 강항의 도움을 받아 宋儒의 뜻으로 四書五經을 펴냈다는 기술이다(후계). 藤原惺窩는 원래 승려인데 豊臣秀吉(토요토미 히데요시 1537?-1598)·徳川家康(토쿠가와 이에야스 1543-1616년)에게 유학을 강설하였으며, 에도(江戸) 초기의 신유학·주자학 발전과 확립에 크게 공헌한 門弟들(林羅山·松永 尺五 등)이 있어 일본 주자학의 開祖라고 불리우게 되며, 일본 역사상의 인물 가운데 百傑 중의 한 사람으로 뽑힐 정도로 유명하다.<sup>9)</sup>

강항이 피납되어 일본에 억류중일 때 藤原惺窩를 만나게 되어 다행히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藤原惺窩는 강항의 도움을 받아 승려에서 유학자로 전신을 하여 새로운 유학·주자학의 길을 개척하게 된다. 그러므로 藤原惺窩의 유학은 강항의 영향에 의해 확립되었다고 해도 과언을 아닐 것이며, 일본 주자학의 성립과정에 있어서의 강항의 역할 내지는 영향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동안 일본에 있어서의 강항 연구는 藤原惺窩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었는데, 『看羊錄』이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읽힐 수 있도록 문고본으로 번역(東洋文庫440, 1984년) 출판된 후에는 강항과 『간양록』에 대한 인식과 연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일반인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는 한일우호 관계의 대명사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특기할 사항이다.

본 발표는 강항의 『간양록』을 중심으로, 강항이 피납되어 일본에 억류되어 있었던 2년8개월 간의 일본인들과의 교류, 특히 藤原惺窩와의 교류를 재조명하여 강항이 일본유학계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보며, 동시에 두 사람의 교류가 조선사회에 미친 영향도 고찰해 보려고 한다. 강항이 藤原惺窩한테, 또는 일본사회에서 받은 충격과 영향은 선조왕·조정에게 호소한 내용에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연 주된 호소내용은 무엇이었으며, 그 호소를 조정에서는 어떻게 받아주고 대처했는지 『조선왕조실록』를 중심으로 검토해보려고 한다.

## 2. 일본에 있어서의 선행연구

한국에 있어서의 수은 강항과 『간양록』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김경옥·박맹수·박세인·이해준(이상 『島嶼文化』35, 2010년 6월)<sup>10)</sup>·방기철<sup>11)</sup>·박덕규<sup>12)</sup>·오종일<sup>13)</sup>·정출현<sup>14)</sup> 등의 주된 논문이 있으며, 최근에는 김덕진<sup>15)</sup>의 연구도 주목된다. 한국에 있어서의 수은 강항·『간양록』연구는 위

7) 『藤原惺窩集』卷下, 國民精神文化研究所, 1935년

8) 『藤原惺窩·林羅山』日本思想史大系, 岩波書店, 1975년.

9) 松井廣吉·川崎紫山 『日本百傑傳』第7-9編, 博文館, 明治24-26년(1891-1893)

10) 김경옥 「수은 강항의 생애와 저술활동」, 박맹수, 「수은 강항이 일본 주자학 발전에 끼친 영향 : 후지와라 세이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세인, 「睡隱 姜沆과 17세기 초 호남 문학의 일면」, 이해준, 「睡隱 姜沆과 內山書院의 문화콘텐츠 활용」 등이 게재되어 있다(『島嶼文化』35, 목포대 학교도서관문화연구원, 2010년 6월)

11) 방기철, 「睡隱 姜沆의 일본인식」, 『韓國思想과 文化』 57, 韓國思想文化研究院, 2011년 3월.

12) 박덕규, 「임진왜란 포로 문제의 스토리텔링 방향 1, 강항의 『간양록』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11-1, 통권24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2년 4월.

13) 오종일, 「姜沆의 충절정신과 儒學의 對倭 傳授로 본 그 위상」, 『孔子學』 22, 韓國孔子學會, 2012년 5월.

14) 정출현, 「임진왜란과 전쟁포로, 굴절된 기억과 서사적 재구」, 『민족문화』 41, 한국고전번역원제 41집, 2013년 6월.

15) 김덕진, 「睡隱 姜沆의 門人和 그 활동」, 『수은강항선생국제학술세미나』자료집, 2019년 6월 19일.

의 제씨의 논술문에 맡기며, 본 항목에서는 일본에 있어서의 기존연구를 살피는데 중점을 두겠다.

일본에서 강항의 이름이 연구서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井上哲次郎의 『日本朱子學派之哲學』<sup>16)</sup>(明治38년(1905)부터이다. 일본 국내의 자료만으로 한 연구였기에 강항을 귀화인으로 보고 있으며, 강항이 추존(推尊)하는 인물이 藤原惺窩이고, 그리고 藤原惺窩의 지시에 의해 宋儒의 사서오경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으며, 경서 자체도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岐陽(기요우 호슈方秀, 1362-1424년)을 비롯하여 桂庵(게이안 겐주玄樹, 1427-1508년) 등에 의해 편찬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강항에 대한 언급에 대해 松田甲는 「內鮮儒學關係 藤原惺窩と姜睡隱」(1925년)에서 『수은집』·『간양록』 등을 섭렵하여, 강항은 귀화인이 아니고 포로가 되어왔다가 갖은 고생 끝에 藤原惺窩와 만난 사람으로 일본 주자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반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주자학연구에서 처음으로 『간양록』을 거론한 논자이다.<sup>17)</sup>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德富猪一郎<sup>18)</sup>는 그의 저서 『文錄慶長以後日本に於ける朝鮮の感化』에서 강항과 『간양록』에 대한 언급에서 ‘포로로 있으면서 조선의 탐정을 겸하고 있었다. 탐정을 겸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고, 학자이어서 조금 가르치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惺窩先生은 그와 상당히 친하게 교류를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원문 인용의 경우 한국어 번역은 필자에 의함, 이하 같음). 그의 저서에서는 강항에 대한 기술 뿐 만 아니라 「壬辰役の戰利品としての朝鮮本(임진란의 전리품으로서의 조선서물)」에 대한 언급도 있어 주목된다. 그 후 일본에 있어서의 주자학 연구, 특히 조선과의 관계를 논할 때에 藤原惺窩와 강항을 거론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 연구가 阿部吉雄의 『日本朱子學と朝鮮』<sup>19)</sup>이다. 이 연구서는 강항에 대한 일본기록도 망라하고 있어 강항연구의 기본 텍스트로 보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학 입장에서 본 宋兢燮의 「睡隱姜沆と藤原惺窩の朱子學」<sup>20)</sup>, 姜在彦의 「日本の江戸儒學と姜沆」<sup>21)</sup>도 일본주자학에 있어서의 강항의 영향·역할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吾妻重二<sup>22)</sup>는 「江戸初期における學塾の發達と中國・朝鮮」에서 강항과 藤原惺窩는 에도江戸 초기의 유학 學塾의 발전과 釋奠 건립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며, 桂島宣弘<sup>23)</sup>는 「姜沆と藤原惺窩 -17世紀の日韓相互認識」에서 에도유학 성립에 강항이 큰 영향을 준 것은 틀림없으나 藤原惺窩의 문제인 林羅山에 이르러서는, 주자학자로서는 藤原처럼 조선을 신뢰했지만, 관리로서는 이미 조선조공국관도 보인다고 한다. 소위 「日本型華夷思想」·「日本中華主義」가 싹트게 된다는 것이다.

강항과 藤原惺窩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임진·정유재란(文祿·慶長役)의 포로연구에 있어서 강항·『간양록』을 취급한 內藤雋輔의 『文祿·慶長役における被擄人の研究』<sup>24)</sup>, 村上恒夫·辛基秀 『儒者姜沆と日本-儒教を日本に傳えた朝鮮人』<sup>25)</sup>, 姜健榮의 『望郷の被虜人と渡來文化』<sup>26)</sup> 등이 있으며, 일본에 있어서의 강항의 행적을 추적한 연구로서는 村上恒夫의 『姜沆-儒教を伝えた

16) 井上哲次郎『日本朱子學派之哲學』富山房,明治38年(1905).이 책은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다.

<http://dl.ndl.go.jp/info:ndljp/pid/1914012>

17) 松田甲<內鮮儒學關係 藤原惺窩と姜睡隱> (『朝鮮』조선총독부,1925년3월)

18) 德富猪一郎, 『文錄慶長以後日本に於ける朝鮮の感化』, 37쪽, 中央朝鮮協會, 1930년.

19) 阿部吉雄, 『日本朱子學と朝鮮』, 東京大學出版會,1965년.

20) 『月刊 韓國文化』41,42,44,韓國文化院監修,1983년2월,3월,5월호.

21) 『Koreana : 韓國の文化と芸術』韓國國際交流財團, 199 2년3월.

22) 『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2,關西大學文化交渉學教育研究據点, 2009년3월.

23) 荒野泰典·石井正敏 等 編, 『日本の對外關係 5 (地球的世界の成立)』, 吉川弘文館, 2013년.

24) 內藤雋輔, 『文祿·慶長役における被擄人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76 年.

25) 村上恒夫·辛基秀, 『儒者姜沆と日本 -儒教を日本に傳えた朝鮮人』, 明石書店,1991년.

26) 姜健榮, 『望郷の被虜人と渡來文化』, かんよう出版, 2018년.

虜囚の足跡』<sup>27)</sup>, 柳哲雄의 『姜沆-宇和島城と豊國神社に落書きをした儒學者』<sup>28)</sup> 등이 있다. 柳哲雄는 책 後記에서 현대에 있어서 조선인(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사건과 文祿·慶長役 때 일본인에 의한 조선인 납치를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총괄해 두는 것도 필요할 지도 모른다고 기술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그 외에 麗羅은 『人物韓國史』<sup>29)</sup>에서 강항을 비극의 시인으로서, 金仙熙는 「十七世紀初期李朝知識人の抑留記にみる他者像」<sup>30)</sup>에서 『간양록』, 『海上錄』등으로부터 他者像을 추구한 논문도 있다.

그리고 『간양록』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서는 崔京國의 「姜沆「看羊錄」-抑留された朝鮮儒者の日本觀」(역류된 조선유학자의 일본관)<sup>31)</sup>과 高野澄의 「<秀吉の素顔> 抑留者姜沆の密書が明かす秀吉」(秀吉의 진모습, 역류자 최항의 밀서가 밝히는 秀吉)<sup>32)</sup>을 들 수 있는데, 전자는 『간양록』에 나타난 일본관을, 후자는 강항이 豊臣秀吉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검토한 기술이다.

기존의 연구에 있어서 강항의 『간양록』에 藤原惺窩와의 관계가 기술되어 있고, 『藤原惺窩集』에서 강항에 관한 기술과 강항이 남긴 글 등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강항의 일본에 있어서의 행적, 특히 藤原惺窩의 유학·주자학은 강항의 협조·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는 이견(異見)이 없다. 그러나 확인해야 할 점은 강항의 협조·조력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하는 주자학의 왜훈이 있는 사서오경은 일본에 있어서 처음으로 간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계한 井上哲次郎가 밝혔듯이 이미 岐陽方秀에 의한 『四書集註』나 桂庵玄秀 등에 의한 『大學章句』(1481년)등이 간행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藤原惺窩이 불승으로 相國寺에 있을 때도 京都의 禪僧들은 주자학의 서책들을 널리 읽고 있었다고 한다.<sup>33)</sup> 그러므로 강항에 의해 일본에 전승된 조선의 주자학, 내지는 왜훈이 있는 사서오경의 편찬이 편찬되었다는 이유로 藤原惺窩을 에도유학의 개조·비조라고 일컫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해 두고 싶다. 기실 그를 가리켜 에도유학의 개조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儒佛分離」의 시초였다는 점에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金谷治의 「藤原惺窩の儒學思想」<sup>34)</sup>에 의하면, 藤原惺窩 이전의 일본 중세에는 博士家에서 폐쇄적으로 연구하는 유학, 내지는 京都 五山の 승려들 간에서 부수적으로 연구하는 유학이었는데, 藤原惺窩에 의해 유학이 개방적으로 되고,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독립되었다는 것이라고 하며, 그 계기는 慶長5년(1600) 秋 9월에 深依·道服을 입고 家康을 알현하였던 일이라고 한다. 전계한 岐陽方秀와 桂庵玄秀 등도 어디까지나 불승으로서 주자학을 알리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藤原惺窩의 결단이 후진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가는 상상하기에 어렵지 않다.

### 3. 강항과 『간양록』

27) 村上恒夫, 『姜沆-儒教を伝えた虜囚の足跡』明石書店, 1999년.

28) 柳哲雄, 『姜沆 -宇和島城と豊國神社に落書きをした儒學者』, 創風社出版, 2008년.

29) 麗羅, 『人物韓國史』下, 徳間書店, 1989년.

30) 金仙熙 「十七世紀初期李朝知識人の抑留記にみる他者像——姜沆の《看羊錄》·鄭希得の《海上錄》·魯認の《錦溪日記》を中心に」 『廣島大學日本語教育研究』11, 2001 年. 金仙熙 『近世日朝知識人の自他認識-十七-十八世紀の朱子學者を中心に』廣島大學 博士學論文, 2003년

31) 『國文學 - 解釋と鑑賞』60(3), 766, 至文堂, 1995년 3월

32) 『歴史と旅』23(12), 353, 秋田書店, 1996년 8월

33) 金谷治 「藤原惺窩の儒學思想」, 4)에 수록

34) 29)와 같음

### 3-1) 강항

강항의 행장에 대해서는 문인 尹舜擧가 기록한 <承義郎守刑曹佐郎睡隱姜公行狀>이 있는데 『수은집』<sup>35)</sup>의 부록에 게재되어 있다. 여기에 의하면, 강항이 22세 때(선조 21년(1588))에 진사시에 2등으로 합격한 일과, 27세 때(선조27년, 1593)에 시행된 과거 庭試에서 丙科로 급제하여 校書館인 하급직으로 예속된 것은 당고(黨綱)때문이라고 한다. 이때 강항이 우계(牛溪)를 찾아가 뵈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우계의 문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0세에 공조좌랑을 거쳐 刑曹佐郎(정6품)이 된다. 이 행장에서 필자가 주시하는 것은 강항이 진사에 합격한 일이다. 문과시험에는 진사시와 생원시가 있었는데, 전자는 부(賦)와 시(詩)의 제목으로 문예창작의 재능을 각각 시험하였고, 후자는 오경의(五經義)와 사서의(四書疑)의 제목으로 유교경전에 관한 지식을 시험하였기 때문에, 강항은 경서보다는 문예 창작에 재능을 발휘한 사람이 되겠다. 그것은 『간양록』에 게재되어 있는 그의 30여 편의 詩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거시험 문과에 합격한 것을 보더라도 사서오경의 공부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급제 후, 우계, 즉 성혼(1535-1598년)의 문인이란 이유로 배척을 당한 일은 강항의 학파를 논하려고 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강항을 퇴계학파로 간주하는 논설이 있기 때문이다.<sup>36)</sup> 학파가 다르다고 배척을 당해 하급으로 예속되었다고 하지만, 30세 때에 형조좌랑의 관직에 오른 것은 결코 늦은 승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성리학의 대가로 李滉(1501-1570년)과 쌍벽을 이룬 李珥(1593-1584년)도 29세 때 호조좌랑직에 취임<sup>37)</sup>했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순조로운 강항의 인생이 급변한 것은 31세 때 정유재란(1597년)이 일어나 그 해 9월23일 영광 고향 앞바다에서 피납되어 일본으로 강제 이송된 후부터이다. 그리고 다행히도 2년 8개월 후인 1600년 5월 부산으로 귀국하게 되는데, 당시 34세이었다. 일본에서의 억류생활은 실의와 함께 울분과 갈망으로 보낸 시일이었겠지만, 『간양록』을 남기어 현재 그의 억류생활의 편린을 규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피납 될 때 강항뿐만 아니라 배에 탄 전 가족이 피납 되었다. 전쟁 포로라는 개념을 넘는 피납이라고 할 수 있다. 內藤雋輔의 조사에 의하면<sup>38)</sup> 조선 사람을 일본에 연행한 이유는, 1)内地에 있어서의 노동력보충을 위해, 2)차문화의 유행과 도자기공의 도래, 3)여자나 동자들 중에는 미모와 才智가 있는 자가 상당수 있었다, 4)전쟁중의 일본 협력자, 5)조선의 전장에서 帶妻했기 때문에 동반한 사람들로 나누고 있다. 강항의 경우는 ‘모습을 보고 관리였기 때문’(敵中封疏에서)이었다고 하지만,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가족 전원을 연행한 것은 역시 노동력의 보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 3-2) 『간양록』

『간양록』의 跋文(1654년 여름 문인 尹舜擧 跋)에 따르면, 저자는 당초에 건거록(巾車錄)이라 題하였는데, 무릇 건거라는 것은 죄인이 타는 수레인데, 선생님께서 겸손하여 죄인처럼 생각하신 것을 자제 문생으로서 어떻게 이런 폄손(貶損)의 명칭을 따를 수 있겠냐며, 권필의 시에 이른바, <절개는 간양을 위해 떨어지고 / 節爲看羊落> 라는 구에서 취하여 문인들이 『간

35) 1)의 『국역 睡隱集』을 텍스트로 이용하였다.

36) 이에 대해서는 金仙熙, 『近世日朝知識人の自他認識』 -十七-十八世紀の朱子學者を中心に』(廣島大學博士學論文, 2003년) 참조 바람.

37) 姜在彦 『朝鮮儒教の二千年』朝日新聞社, 2001년, 그리고 17) 참조.

38) 內藤雋輔 20)와 같음

양록』이라고 했다고 한다.

『간양록』은 「賊中封疏」·「詣承政院啓辭」·「涉亂事迹」·「詣承政院啓辭」·「涉亂事迹」·「賊中聞見錄」(倭國百官圖,倭國八道六十六州圖, 壬辰丁酉入寇諸將倭數)·「告浮人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계(兪槩)(1607- 1664 년)가 쓴 序文(1656년가을)과 유순거(尹舜舉)(1596-1668년)가 쓴 跋文도 함께 전해지고 있다.<sup>39)</sup> 무엇보다도 倭國八道六十六州圖란 지도가 삽입되어 있고, 지리지(地理志)와 같은 설명도 하고 있다. 강항은 특히 지도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왜국이 조선보다 작은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조선의 두 배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倭國八道六十六州圖」) 충격을 받았던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진·정유왜란은 秀吉이 다른 왜장들의 병세를 소모시키어 자신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 일으켰다고 보는 견해를 기술하고 있어 주목된다. <賊中聞見錄>에서는 왜국의 官制· 왜국의 지리와 풍물· 倭將들의 인물 등을 조목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어 당시의 일본을 이해하는데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었다. 河宇鳳의 조사에 의하면<sup>40)</sup>, 이수광(1563-1628년)의 『지봉유설』, 이익(1681-1763년)의 『성호사설』, 안정복(1712-1791년)의 『동사강목』, 이덕무(1741-1793년)의 『청령국지간』 등의 중요 참고서가 되었고, 통신사들한테도 안내서로서 이용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 즉 秀吉에서 家康으로 이어지는 시기의 政情·풍속에 대해 자세히 적혀져 있어 일본의 역사가들에게 연구를 권하고 있으며<sup>41)</sup>, 실제로 일본에서 『간양록』을 중심으로 秀吉의 실상을 추구한 연구도 있다.<sup>42)</sup>

『간양록』처럼, 저자가 임진·정유년에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람의 기록으로는 정희득(1573-1623년)의 『월봉해상록』, 魯認(1566-1622년)의 『금계일기』, 정경득(1569-1630년)의 『만사록』, 정재인(1597년-?)의 『정유피난기』 등이 있으나, 『간양록』 같이 자세하지 못하며, 무엇보다 집필의도가 다른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간양록』의 <賊中封疏>는 임금께 상소하기 위한 글이며, <承政院啓辭>는 승정원에 계사한 글이며, <告浮人檄>는 일본에 남아 있는 피납인들에게 보내는 글이다. 이렇게 확실한 목적과 대상을 의식하고 만든 글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록물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 3-3) 일본에서의 『간양록』 번역

『간양록』이 일본어로 처음 번역된 것은 明治44년(1911)이다. 조선총독부의 부원과 함께 당시 조선총독부 통역관이었던 前間恭作, 漢城高等學校學監인 高橋亨 등이 참가한 朝鮮研究會에서 간행하였다. 京城에 있었던 조선연구회는 조선의 珍書를 일본어번역 간행을 목적으로 한 연구회였는데, 『간양록』은 제1기 번역서물 목록에 들어가 있었으며, <角干先生實記>·<東京雜記>와 함께 번역되어 실렸다.<sup>43)</sup> 두 번째 번역은 1981년에 이루어져 『日本庶民生活史料集成』 시리즈에 실려 있다. 시리즈 제 27권은 조선·일본·琉球의 <삼국교류지> 인데, 여기에 <海東諸國記>·<海游錄>·<李朝實錄抄>와 함께 『看羊錄』이 실려 있다. 이 『간양록』은 大正3년(1914)간행된 『海行摠裁』(경성의 조선고서간행회 간행)에 게재되어 있는 『간양록』(한문본)을 저본으로 한 것이다. 번역자인 鈴木博의 해제에 의하면, '江戸期の 유학자는 藤原惺窩의 저작과 함께 姜沆의 저작에도 접하고 본서 『간양록』도 많이 읽혀졌다고 한다.'<sup>44)</sup>고 하는데, 『간양록』이 읽힌

39) 李乙浩譯 2)와 같음.

40) 河宇鳳·井上厚史, 『朝鮮實學者の見た近世日本』, ぺりかん社, 2001년.

41) 阿部吉雄 15)와 같음

42) 高野澄 「<秀吉の素顔> 抑留者姜沆の密書が明かす秀吉」(『歴史と旅』23(12),(353), 秋田書店, 1996년 8월)

43) 朝鮮研究會, 『角干先生實記·看羊錄·東京雜記』, 京城, 1911년.

논증을 제시하지 않아 아쉬운 감이 있다. 세 번째는 朴鐘鳴에 의해 平凡社 동양문고 440번재의 책으로 『看羊錄-朝鮮儒者の日本抑留記』란 제목으로 출판되었다(1984년). 저본은 故阿部吉雄家藏(1656년 간본)의 원간본사진판과 고서간 행본(1914년)이었다고 한다. 이 문고본에 의한 출판으로 일반인도 쉽게 『간양록』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 3-4) 舜首座(藤原惺窩)에 대한 기술

『간양록』에서 강항이 접한 일본인들은 거의가 승려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필담으로 밖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강항에게 있어서는 승려는 한문을 적을 수 있는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이다. 『간양록』에서 藤原惺窩와 관련된 기술은 네 번 나오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秀吉이 죽은 후 구경삼아 그 묘를 찾아갔다가 현판에 써있는 글을 보고는 어이가 없어, ‘반생동안 한일이 흠 한 줌인데---운운’이라고 적어 넣었다. 이일이 있은 후 왜승 묘수원(妙壽院)의 순수좌(舜首座)(舜은 이름이고, 首座란 禪寺에서 주지승 다음가는 지위로 1室을 갖게 된다. 藤原惺窩의 불교식 이름이다)라는 자가 뒤에 와서 나를 보고 말하기를, ‘지난번에 대합(大閭)의 총전(塚殿)에 붙은 글씨를 보니, 바로 족하(足下)의 글씨였습니다. 왜 스스로 몸을 아끼지 않습니까(半世經營土一坪, (하략) 壽院舜首座者, 後來見我曰, 向見大閭塚殿所書, 乃足下筆也, 何不自愛也. 「涉亂事迹」에서)’라고 했다고 한다. 잘못하면 큰 일을 당하니까 조심하라는 충고의 말이다. 이것은 藤原惺窩가 강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말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관아에 가서 통고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伏見에 있을 때, 피납된 사람들과 중형과 함께 탈출을 시도할 때의 이야기에서 언급된다. ‘왜인들의 풍습이란 돈이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고 하기에 그래서 왜승 순수좌를 따라 글씨 품을 팔아서 은전을 얻고는, 남몰래 임진년에 포로된 사람 신계리(申繼李)·임대흥(林大興) 등과 함께 서로 결탁하였다. 중형이 계리 등을 거느리고 은 80문(文)을 주고서 배 한 척을 사서 --- (운운) (倭土之風, 有錢則可使鬼, 遂從倭僧舜首座, 傭其書得銀錢, 暗與壬辰被擄人申繼李林大興輩相結, 仲兄率李等以銀八十文買一船, --- (하략). 「涉亂事迹」에서)’이라는 구절이다. 일본 탈출에 필요한 배를 구하기 위해 순수좌에게 글을 팔았다는 것이다.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는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에 따라 강항도 탈출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여기서의 순수좌는 품삯을 얻기 위한 대상에 불과했다.

세 번째의 언급은 왜승이 남은 병풍에 흰 국화와 목련과 나팔 꽃 등을 그려놓고 강항에게 題詩를 청해왔기에 두 편의 시를 지어 적어 주었는데 그 때 순수좌도 이 시에 화답하여 한 수를 지어 다른 화폭에 적었다고 한다. 그 시의 마지막 구에 ‘이 꽃을 대하면 내 스승이라 부르네(對花猶, 道是吾師)’라고 하여 순수좌는 꽃을 강항에 비유하며 스승으로 부르고 있다고, 또는 부르겠다고 밝히고 있다(「涉亂事迹」에서). 아마도 사서오경의 淨書와 왜훈을 달게 해주고 난 후의 일일 것이다. 네 번째는 왜장들의 인물소개 가운데 但馬守赤松左兵 廣通의 스승으로서의 순수좌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장문이기에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묘수원(妙壽院)의 승 순수좌(舜首座)라는 자가 있는데, 그는 但馬守 廣通의 스승으로서 자못 총명하여 古文을 이해하여 어느 글이라도 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고, 성품이 굳세어 왜인에게 용납되지 못하였다. 家康이 그가 훌륭한 인재란 말을 듣고서 倭京에다 집을 지어 주고 해마다 쌀을 2천 석씩을 주었는데 그 집을 버리고 살지 아니하였고 곡식도 사양하여 받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본 백성의 고난이 심하니 조선이 만약 중국 군사와 함께 일어나서 일본 백성을 조문하고 죄 있는 자를 토벌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갖고 있으며, 또 그는 신묘년(1591) 3월에

44) 『日本庶民生活史料集成』, 三一書房, 1981년.

중국(大唐)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병이 나서 돌아왔고, 병이 낫게 되면 조선으로 건너가려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바다를 건너지 못했더라며, 그는 중국과 조선을 上國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壬辰丁酉入寇諸將倭數涉亂事迹」에서)<sup>45)</sup> 순수자는 성품이 깨끗한 사람으로 권력과도 타협하지 않고, 일본 백성의 시달림을 걱정하고 구제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강항은 평하고 있다.

위의 순수좌에 관한 기술은 왜장들의 인물에 대한 소견 중 마지막으로 거론한 但瑪守赤 松左兵廣通에 대한 소견 중에 그의 스승으로서 순수좌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秀吉의 명령에 의해 조선을 침략한 왜장 중에는 廣通과 같이 공자묘를 세우고 조선의 제복·제관을 입고 제의를 익히려고 하는(후계) 왜장도 있고,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지식인 중에는 순수좌와 같이 양심적인 인물도 있다고 밝히는 부분으로 냉철한 강항의 일본 비평으로 생각된다.

강항은 순수좌보다 6살 아래다. 그리고 입장이 다르다. 피납 되어온 사람과 일본인 승려 그것도 首座란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먼저 이 입장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보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처럼 순수좌가 충고·주의를 주는 일은 「姜沆筆談」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藤原惺窩가 微錄을 걱정하는 강항에게 그와 같은 것에 구애받지 않도록 충고를 하니, 고명한 가르침에 사의를 표하며 응락하는 강항의 답변이 있다.<sup>46)</sup> 아마도 만나서 얼마 안 될 때의 필담인 것 같다. 일본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강항의 불안과 초조감을 느낄 수 있는 필담이기도 하다. 두 번째의 순수좌는 강항에게 있어서 일본을 떠날 준비를 위한 자금을 얻을 수 있는 사람에 불과하였던 것 같았다. 그러나 세 번째는 강항이 보는 순수좌가 아니라 순수좌가 생각하는 강항에 대한 글인데, 스승으로 부르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겨진 시로 파악된다. 아마도 사서오경의 왜훈독이 끝난 후의 시로 생각되는데, 이 시기는 강항이 <五經跋>을 적은 慶長 4년(1599) 2월<sup>47)</sup> 이후일 것이다. 네 번째는 순수좌가 왜장들을 도적들(日本長官, 盡是盜賊, 云云, <「壬辰丁酉入寇諸將倭數」에서)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전술한 대로 전쟁으로 인한 일본백성의 시달림을 구제하려는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순수좌에 대한 생각도 慶長4년(1599) 2월 이후일 것이다.

#### 4. 藤原惺窩와 일본에서의 강항

##### 4-1) 藤原惺窩

『간양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舜首座·藤原惺窩(1561-1619는, 字는 斂, 名은 舜이고, 藤原惺窩는 號이다. 歌學의 명문 冷泉家の 후예로 播磨國細河郡(현재 兵庫현三木市)에서 태어났다. 藤原惺窩는 7~8세 때 불문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의 행장에 의하면, 佛書보다는 유학에 뜻을 두고 있었다고 한다. 18세 때 父와 兄이 참사를 당한 후, 京都 相國寺에 있는 숙부를 찾아가 여기에서 禪의 수행을 하게 된다. 당시 일본불교의 특징으로서 補佛論으로서 유학을 연

45) 又有妙壽院僧舜首座者,京極黃門定家之孫,而但馬守赤松左兵衛廣通之師也頗聰明解古文,於書無不通,性又剛草秒峭,於倭無所容,內府家康聞其才賢,築室倭京,歲給米二千石,舜首座者捨室不居,辭粟不受,(중략)舜首座者嘗曰,日本生民之憔悴,未有甚於此時,朝鮮若能共唐兵,弔民伐罪,(중략)吾辛卯年三月下薩摩隨海舶欲渡大唐而患瘵疾還京待病小愈欲渡朝鮮而繼有師旅恐不相容,故遂不敢越海其不得觀光上國亦命也(「壬辰丁酉入寇諸將倭數」), 1)과 같음

46) 「姜沆筆談」,3)과 같음

47) 太田兵三郎,「藤原惺窩に就いて」,『藤原惺窩集』卷上,國民精神文化研究所,1935년.

구하고 있었던 禪僧들이 많았는데, 藤原惺窩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藤原惺窩의 제자로서 江戸시대의 일본유학(주자학)을 확립시킨 林羅山(1583-1657)도 처음에는 불문에서 수행하였다가 유자로서 대성하였다. 이러한 일본불교계의 상황을 강항도 파악하고 있었는데, 『간양록』 「詣承政院啓辭」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승려 중에서 불경(佛經)을 다스리는 자는 혹은 남무아미타불을 주로 삼기도 하고, 혹은 묘법연화경을 주로 삼기도 하며, 절을 갈라 맡아 다루는 것이 마치 원수와도 같고, 성경(聖經)을 다스리는 자는 혹은 공안국(孔安國)·정현(鄭玄)의 전주(箋注)를 주로 삼기도 하고, 혹은 주회암(朱晦庵)의 훈해(訓解)를 주로 삼기도 하여, 문(門)을 갈라 왕복(往復)하여 각기 당여(黨與)를 세웠다.<sup>48)</sup>(하선 필자에 의함, 이하 같음)

승려를 크게 불경과 聖經(유학)을 다스리는 파로 나누어져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은 기술은 아마도 藤原惺窩한테서 들은 이야기이었겠지만, 당시 일본의 불교와 유교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구절이기도 하다.

실제로 藤原惺窩가 유학·주자학을 접하게 된 것은 어릴 때 儒僧으로서 유명한 仁如集堯(년쥬슈교, 1483-1574)의 지도를 받기 시작했을 때인 것 같고<sup>49)</sup>, 유학·주자학에 뜻을 세우게 된 것은 조선통신사로 내일한 黃允吉·金誠一·許箴<sup>50)</sup> 등과의 친교가 계기가 되었고(1590년11월), 또 文祿役(임진왜란)때 일본과의 강화를 위해 내일한 명국사신들(1593년5월15일 내일)과 肥前名護屋에서 접견한 후부터 라고 한다.<sup>51)</sup> 그래서 藤原惺窩는 굳은 결심을 갖고 渡明을 하러 築陽(鹿兒島)에 내려가서 배를 타지만, 풍랑을 만나 鬼海島에 표착해서 단념하고 마는데, 이 일에 대해 林羅山은 ‘선생 中華의 풍을 흠모해 그 문물을 보려고 한다. 그렇지만 그 큰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돌아왔다. 선생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모시는 스승이 없다. (앞으로는) 이것을 六經에서 족히 구할 수 있다’고 했다.<sup>52)</sup> 藤原惺窩의 渡明 시도에 대해서는 『간양록』 <壬辰丁酉入寇諸將倭數>에서도 보이는데, 辛卯年(1591년)三月의 일로 병이 나서 되돌아왔다고 하며, 병이 나으면 조선으로 가려고 했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단념했다고 한다.<sup>53)</sup> <藤原惺窩先生行狀>에서는 文祿2년(1593)에 藤原惺窩는 江戸에 갔다 온 후에 얼마간 京都에 있다가 도명을 하려고 築陽에 내려간 것은 명국의 사신을 접견한 후로 36세 때인 慶長원년(1596)의 일로 되어 있다. 『간양록』에서는 藤原惺窩의 도명 시도를 辛卯年(1591년)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이것은 1596년 丙申년의 誤記로 판단된다. 이 도명 강행은 藤原惺窩가 불문을 떠나 유학으로

48) 其僧之治佛經者.或主南無阿彌陀佛.或主妙法蓮華經.分寺爭難.有同仇敵.治聖經者或主孔安國鄭玄箋註.或主朱晦菴訓解.分門往復.各立黨與.「詣承政院啓辭」,1)과 같음.

49) 金谷治 29)와 같음.太田靑丘『人物叢書 藤原惺窩』吉川弘文館, 1985년.특히 許箴이 적어준 <柴立子說>은 惺窩가 좌우의 명으로 삼았다고도 한다(宋競燮16)와 같음)

50) 『羅山林先生文集』惺窩先生行狀(卷第四十,行狀)에는 서로 筆語를 나누며, 詩를 지어 酬和를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리고,일본에서는 許箴을 許箴之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기로 생각되는데, 이미 『惺窩文集』『羅山文集』에서 箴之로 표기되어 있다.

51) 今中寬司,『近世日本政治思想の成立』,創文社, 1972년. 桂島宣弘,「姜沆と藤原惺窩-十七世の日韓相互認識」『歴史を通して「他者」と向き合う』,太陽出版, 2019年, 所收

52) 「羅山林先生文集」4)와 같음.‘先生以爲, 聖人無常師, 吾 求之六經足矣’.

53) 나는 신묘년 3월 살마주(薩摩州)로 내려가서 해박(海舶)을 따라 중국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병이 나서 경(京)으로 돌아왔소. 병이 조금만 낫게 되면 조선으로 건너가려고 했는데, 뒤미처 전쟁이 벌어져서 서로 용납하지 못할까 걱정하여, 이 때문에 마침내 감히 바다를 건너지 못했으니, 그 상국(上國)에 가서 관광(觀光)을 못하게 된 것도 역시 운명입니다.’ 하였습니다.( 吾辛卯年三月下薩摩隨海舶欲渡大唐而患瘵疾還 京待病小愈 欲渡朝鮮而繼有師旅恐不相容故遂不敢越海其不得觀光上國亦命也 <壬辰丁酉 入寇諸將倭數>), 1)과 같음.

독립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듯 藤原惺窩가 신유학·주자학에 대한 배움을 열망하고 있을 때 京都 伏見에서 강항을 만나게 되는데,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강항이 大坂城에 도착한 날은 1598년 9월 11일 이고, 그 수일 후에 伏見로 압송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난 것은 그 이후가 되어 그 해 가을에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sup>54)</sup> 그렇다면 강항이 귀국 할 때까지(1600년 5월)까지 약 1년 7개월간 두 사람은 교우관계를 갖게 된다.

#### 4-2) 藤原惺窩와 강항

「藤原惺窩先生行狀」에 의하면 강항이 赤松氏의 집에 있을 때에 藤原惺窩와 만났다고 한다. 먼저 『藤原惺窩集』, 『羅山林先生文集』 등에 실린 강항의 주요 행장은 다음과 같다.

ㄱ) 赤松公 새롭게 四書五經의 경문을 필사해서 나에게 청하기를, 宋儒의 뜻으로서 倭訓을 글자 옆에 달아 후학에게 편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일본에서 宋儒의 뜻을 읊는 사람은 이 책으로써 원본으로 삼겠다. 유수지음이 이 세상에 없다하더라도 후세의 지기가 또 볼 수 있지 않은가, 이 일을 적어 사실을 밝혀 책뒤의 跋로 하려고 한다. 이것은 赤松公의 素志이며 나의 至幸이다. 이것을 허락해 주기를 바란다<問姜沆><sup>55)</sup> (한글 번역 필자에 의함, 이하 같음)

ㄴ) 赤松公집에 朝鮮刑部員外郎 姜沆이 와 있었다. 沆선생(藤原惺窩)을 보고 일본국에도 이런 사람 있는 것을 반가워해 같이 담소하는 날이 있었다. 沆 말하기를, 조선국 300년 이래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을 나는 아직 듣지 못 했고, 내가 불행히도 일본에 오게 되었지만 이 사람과 만난 것은 大幸이 아니겠는가, 沆, 선생 거하는 곳을 칭하여 廣(月+半)반窩라 하였다. 선생 자칭하여 藤原惺窩라 하였다. 이것은 上蔡가 말하는 惺惺의 法에서 취한 것이다.<藤原惺窩先生行狀>

ㄷ) 本朝의 儒者·博士는 예부터 漢·唐의 註·疏를 읽고, 經·傳을 点하고 倭訓을 가했을 뿐이다. 그렇지만 程·朱의 書에 이르러서는 아직 習의 일도 모른다. 그래서 성리의 학을 아는 사람이 적다. 이 때문에 선생 赤松氏에게 권하여 姜沆 등 십 수 명으로 하여금 四書·五經을 淨書하게 하였다. 선생 자신이 程·朱의 의미에 따라 訓·点을 붙였다. 그 공은 지대하다. 또 文章弁休를 취하여--- (하략)<藤原惺窩先生行狀>

ㄱ)은 藤原惺窩가 강항에게 跋을 써달라고 부탁하며 보낸 서간이다(이 五經跋은 『藤原惺窩集』 권상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藤原惺窩에게 훈독을 달아주기 바란다고 부탁한 赤松廣通(1562-1600년)는 播州龍野藩主城主로 藤原惺窩의 후원자이자 門人이기도 하였다. 藤原惺窩에 의한 四書五經에 宋儒의 意로 훈독을 가하는 작업은 먼저 경서의 필사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 淨書 작업에 힘 쓴 사람들은 ㄷ)에서 밝히고 있듯이 강항을 포함한 십 수 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작업에 참가한 사람들은 아마도 강항과 같은 포로들이었을 것이다.<sup>56)</sup> 이 포로·선비들은 강항이 귀국할 때에 ‘선비(士人)들의 가족들도 포함해서 38명이 배에 올랐다.(「壬辰丁酉入寇諸將倭數」에서)는 그 선비들이기도 했을 것이다. 四書五經에 주자학으로 왜훈을 단 책이 일본에서 처음 간행된다고 藤原惺窩는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전술한대로 이미 『四書集註』나 『大學章句』(1481년)등이 간행되어 있었던 것을 藤原惺窩는 몰랐었는지 모른다. 어떻든 위의

54) 43)과 같음. 『藤原惺窩集』, 卷上.

55) 4)와 같음. 『藤原惺窩·林羅山』

56) 현존하는 필담기록 가운데는 이 일에 종사한 포로와의 필담이 남아 있다.3)과 같음 (『藤原惺窩集』 卷下)에 수록.

사업은 강항이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었던 일이었음은 재언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강항은 廣通와도 친교가 있었던 것은 ㄴ)에서 확인되지만, 『간양록』에서도 廣通에 대해 다음과 같이 슬회하고 있다.

신의 일을 들어 광통에게 이야기했더니, 광통이 이따금 찾아와 안부를 물으며 자칭 청정·좌도 등과 더불어 틈이 나있는 처지이니, 절대로 좌도의 집에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또 일찍이 우리나라 선비로서 포로가 되어 있는 자와 신 형제를 상종하여 육경(六經)의 대문(大文)을 적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가만히 은전(銀錢)을 주어 객지의 생활비에 보조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노자나 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일찍이 우리나라 《오례의(五禮儀)》·《군학석체 의목(郡學釋菜儀目)》을 얻어서 그의 사읍(私邑)인 단마(但馬)를 독려하여 공자의 묘(廟)를 세우고 또 우리나라 제복(祭服)·제관(祭冠)을 만들어 날을 걸러 그 부하를 거느리고 제의(祭儀)를 익혔습니다.<sup>57)</sup>

전계한 四書五經의 필사에 대해서 『간양록』에서는 육경의 필사로 기술하고 있지만, 전술한 대로 강항을 비롯한 포로가 된 사람들에 의해 필사가 행해진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비록 적장이지만 廣通의 성품에 대해서는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고 있는 사람으로 강항은 묘사하고 있는데, 강항이 귀국 허가를 받았을 때도 먼저 藤原惺窩와 廣通에게 달려가 모든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더니, 廣通은 안전한 뱃길을 위해 신임장을 받아주기도 하고, 뱃사공도 붙여주기도 하였다. 아마도 귀국선 구입에도 원조를 해준 사람으로 강항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강항이 귀국한 5개월 후인 1600년 10월 28日, 豊臣의 편이었기 때문에 家康한테서 자진을 명령받고 39세로 자신의 일생을 마감한다. ㄴ)은, 藤原惺窩의 제자 林羅山의 문집에 실려 있는 <藤原惺窩先生行狀>의 기록이다. 藤原惺窩와 강항이 처음 만났을 때 강항의 놀라움이 컸었다고 전하고 있다. 藤原惺窩란 호도 강항이 지어준 거실명으로 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사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藤原惺窩가 그동안 거하고 있었던 相國寺 妙壽院에서 나와 새로운 집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환언하면 藤原惺窩가 불문을 파계하여 유학자로서 독립하였던 시기로도 볼 수 있다. 石田一良는 강항이 藤原惺窩를 등림부(藤斂夫)로 부르고 있었다든가, 藤原惺窩가 慶長3년경에 ‘釋氏는 이미 仁種을 絶했다’고 말했다는 것 등을 근거로 慶長 3년 (1598)에 절에서 떠났다고 보고 있는데<sup>58)</sup>, 필자는 ㄴ)의 기록으로부터 石田一良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藤原惺窩와 강항과의 첫만남에서 강항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고 제자 林羅山은 위와 같이 기술하고 있는데, 『간양록』에서는 전계한 기술처럼(순수좌에 대한 네번째 기술) 총명 박식하고 성품이 굳세고, 권력에 타협하지 않은 고결한 인간으로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계한 것처럼 藤原惺窩는 왜인에게 용납되지 못하는 면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廣通에 비하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藤原惺窩와 강항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유학·주자학이 강항으로부터 藤原惺窩에게 전수된 것은 위의 기록으로부터 틀림없지만, 필자는 강항이 藤原惺窩로 부터 얻은 일본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간양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간양록』은 다른 일본의 견문록, 예를 들면 『해행총서』에 들어 있는 책들과는 성격이 다르며 내용도 다르다. 강항이 밝히고 있듯이 ‘왜정(倭情)에 대한 기록과 적괴(賊魁)가 죽은 뒤의 간

57) 遂以臣事語廣通,廣通時相候問,而自以爲清正佐渡等有隙,絶不令佐渡家知,又嘗從我國士人之在俘虜者及臣兄弟.求書六經大文,潛以銀錢助臣等羈旅之費,以資歸路.「壬辰丁酉入寇諸將倭數」1)과 같음.

58) 石田一良<林羅山の思想>,4)『藤原惺窩·林羅山』에 수록

위(奸僞)를 기록'하여 '어모(禦侮)하는 정책에 있어 다소 도움이 없지 않을까'(其倭情所錄,及擬上賊魁死後奸僞,(중략) 則於折衝禦侮之廟算,不無少補矣)하고 믿고 기록한 것이다. 아마도 秀吉가 죽었다는 정보를 알고는 죽음을 각오하고 서둘러 명국사절을 만나 <적중봉서>를 전했던 것 같다. 당시 秀吉의 죽음(1598년 8월18일 몰, 1599년 4월13일 매장)을 비밀로 하고 있었지만, 강항은 그 사실과 비밀로 하고 있는 이유까지 『간양록』에 자세히 적고 있다. 강항 일 개인이, 그것도 말도 안 통하는 일본에서 명국사신이 당도하여 묵고 있는 여관까지 알고 찾아갔다는가, 당시 조선에 출병한 병사숫자(임진 때는 16만1천5백 명, 정유 때는 14만5백명)와 무장들의 이름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일본군의 출병숫자는 지금의 연구결과 와도 유사한 것에 필자는 감탄을 금치 못 했다. 아마도 秀吉의 측근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 들이 많이 있는 것이 『간양록』의 큰 특징일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서·지도, 내지는 당시의 상황을 누구한테서 얻고 들었을까 하는 문제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간양록』에서 일본에서 문서를 보여준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은 伊豫 金山 出石寺의 好仁이란 승려 뿐이다.<sup>59)</sup> 그 외는 강항이 「倭國八道六十六州圖」를 작성성할 때처럼, '일찍이 신에게 홍법사(弘法師)가 기록한 것을 보여준 사람이 있어, 그 지도(地圖) 뒤에 쓴 기록을 얻어 보니 (운운) 嘗有示臣以弘法師所記者,得見其圖地後錄> 이라고 하여 누가 보여주었는지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아마도 누를 끼칠지 모른다는 배려로 이름을 생각했는지 모른다. 강항이 만난 사람 중에서 秀吉과도 접하고 일본과 명국과의 강화를 위해 내일한 명국의 사신들과도 접한 사람은 藤原惺窩 뿐이다. 『간양록』에서는 순수좌가 사신들이 머물고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명국의 사신들과의 대담은 그의 문집에 <明國講和使에 대한 質疑草稿>가 남아 있다.<sup>60)</sup> 그리고 순수좌는 일본 백성의 고난과 지금의 정국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조선과 당병(명국)이 일본에 들어와도 좋다는 의견을 피로한 적이 있다.<sup>61)</sup> 불교 승려이기도한 藤原惺窩가 당시의 시국을 볼 때, 전쟁을 일으켜 젊은 사람들을 많이 죽게 하는 당시의 위정자나 정책에 강한 비판을 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간양록』을 살펴보았을 때, 일본의 자료를 한 두 번 보고 기억을 더듬어 필사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자료를 옆에 두고 필사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필사를 묵인하고 협조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리고 강항은 일본말을 몰라서 필담으로 하였기 때문에 들은 내용도 정확히 필사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藤原惺窩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간양록』은 단순한 견문록에 불과한 기록이었을 것이다. 자료에 입각한 기술이 많은 『간양록』이었기에 강항 이후의 조선문인들한테는 신빙성이 있는 일본의 지침서가 되기에 충분하였고, 조정에서는 『간양록』에서 제시된 제안에 귀를 기울여 행정에 반영되었던 것을 보면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간양록』에서 언급), 『간양록』이 조선사회에 미친 영향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ㄷ) 도 藤原惺窩의 제자 林羅山문집에 수록된 기술이다. '本朝의 儒者·博士는 옛부터 漢·唐의 註·疏를 읽고' 운운이란 첫 구절은 당시 일본에 있어서의 유학의 현황을 지적하고 있기에 부연하겠다. 당시 일본 유학의 연구는 조정의 博士家(淸原家와 中原家)가 세습적으로 해왔으며, 민간에서 사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고, 불교계에서는 宋에 유학한 禪僧들이 중심이 되어 불교학을 보충하기 위해 유학·주자학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래서 유학은 위에서

59) 出石寺에 好仁이란 승려는 존재하지 않았으며,快慶法印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처음으로 밝힌 연구자는 內藤雋輔이다.<sup>20)</sup>와 같음.

60) 3)과 같음, 『藤原惺窩集』 卷下.

61) (조선이 만약 중국 군사와 함께 일어나서 백성을 조문하고, 죄 있는 자를 토벌하되(운운)(首座 者嘗曰,朝鮮若能 共唐兵,弔民伐罪). 1)과 같음.

지적인 博士家나 禪僧들에게 국한된 폐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sup>62)</sup> c)와 같이, 藤原惺窩 등에 의한 四書五經의 새로운 해석·연구는 조정의 전통적인 유학연구에 대한 도전이며, 일반화를 지향하는 개척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의 공은 지대하다고 林羅山은 경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藤原惺窩를 가리켜 江戸유학의 개조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姜沆이 일본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특히 伏見의 억류기간(1998년 9월-1600년 4월)에서 남긴 遺文에 대해서는 전계한 宋競燮의 상세한 조사에 미루지만, 최초의 문서로 알려져 있는 吉田意安(1558-1610)의 『歷代名醫傳略』(1598년3월12일)의 서문은 현재 사진본으로 공개되고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sup>63)</sup>, <姜沆筆談>, <五經> 跋文, <文章達德綱領>서문, <是尙窩記>, <惺齋記> 등은 활자화되어 『藤原惺窩集』에 게재되어 있다. 그리고 경서류의 필사본으로는 수진(袖珍本)인 사서오경(9종15책)과 性理諸書(8종9책)가 국립공문서관의 內閣文庫에 현존하고 있다.<sup>64)</sup> 최근 입수한 강대석의 『수은강항 평전』에 의하면, 내각문고에 소장된 강항관련의 16종 21책을 복사하여 내산서원에 비치하고 있다고 한다.<sup>65)</sup> 앞으로의 연구 활동이 기대된다.

## 5. 『조선왕조실록』과 『간양록』

강항의 억류생활은 실의와 울분, 그리고 귀국에 대한 집념으로 보낸 시일이었겠지만, 전계하였듯이 왜정(倭情)에 대한 기록과 적괴(賊魁)가 죽은 뒤의 간위(奸僞)를 기록하여 어모(禦侮)하는 정책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상소를 올리게 된다. 이 상소 내용을 보면 억류생활을 통해 조선의 약점을 알게 되고, 시책이 온당치 못한 것들을 알게 되어 선조와 조정에 건의를 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벽지에 수령 한 사람을 보내더라도 신중히 해야 된다(이순신의 예), ㉡갯가 섬 둘레의 어장·소금벌 논밭을 군공이 뚜렷한 변장들에게 나누어주어 식읍으로 한다.(자신과 가족,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게 된다), ㉢대마도의 거짓 수작에 넘어가고 있다(이번 전란도 꼬투리는 대마도 義智수작에서 나온 것 등), ㉣성터(산성의 위치가 읍터와 너무 멀다), 성주의 자격, 보루와 수비군의 훈련 등의 재고, ㉤귀순병은 죽이지 말고, 대우하여 공작원으로 쓴다. ㉥응원군을 차단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일망타진한다. ㉦화평조약은 일본군이 철퇴한 후에 해야 한다는 등이다. 이러한 건의 들은 강항이 직접 보고 느낀 점들로, 일본과 비교하면서 기술하고 있기에 설득력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 地誌에 대한 설명가운데, 넓이와 거리를 소상히 밝히면서, 일본이 조선보다는 작다고 보았는데 왜승 憲安의 조사에 의하면, 실은 조선의 토지는 일본의 절반도 못 된다고 하는 지적 등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강항의 <賊申封疏>가 조정에 도착하여 정식으로 『조선왕조실록』<sup>66)</sup>에 올려지기까지는 많은 논의가 있었겠지만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다. 어쨌든 ①선조29년 병신(1596) 12월 22일(갑신) (이하 본문생략) 기록에 <賊申封疏>가 실려 있는데, 아무런 의견도 논평도 없이 상소문만 실려 있다. 『간양록』의 <적중봉소> 와 비교하면, 약간의 상이점은 있지

62) 姜在彦 참조,17)과 같음.

63) <http://dl.ndl.go.jp/info:ndljp/pid/2535657>(사진판공개). 吉田意安이 편한 明의 『古今 醫案』에는 藤原惺窩의 서문이 있는데, 강항의 『歷代名醫傳略』서문은 惺窩의 추천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모른다.

64) 宋競燮 전계서,16)과 같음.

65) 강대석, 『수은강항 평전』, 도서출판사람들, 2018년.

66) 『조선왕조실록』은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를 이용하였다. [http://sillok.history.go.kr/id/kna\\_13306009\\_002](http://sillok.history.go.kr/id/kna_13306009_002)

만,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은 어떤 문중에서 태어났고 조상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또는 자신은 편전에 입시한 적이 20회나 된다는 등 자기 자신의 소개부분이 길다는 점이 『조선왕조실록』<적중봉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도 등은 삭제되어 있다. 아마도 상소를 올리는 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개를 해둘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관견에 의하면, 『간양록』에 관한 『조선왕조실록』과의 연구는 이 기록에서 멈추고 있다. 그래서 麗羅의 『人物韓國史』에서도 ‘여기까지이었다. 그 후의 선조 조정은 강항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올린 건의는 다시금 돌이켜보는 일은 없었다.’<sup>67)</sup>고 지적하고 있지만 정정되어야 한다. 나라를 위하는 충절의 상소, 일본의 현황을 전하는 상소를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약 3개월 후인 ②선조 32년 기해(1599) 7월 19일(병인)에 승정원에서 문제시 한다. ‘중국인(唐人)이 가지고 온 강항의 疏 1책은 그 문투와 언어를 보면 향이 지었다는 것에 실로 의심할 바가 없지만 그 字體를 보면 중국인이 쓴 것 같아서 사신들에게 물으니, 먼저 돌아오는 중국인으로 하여금 그 소를 등서하여 가져가게 하고 진본은 위관이 있는 곳에 두었다고 하였다.’ 승정원에서 면밀히 검토한 것은 등서하는 과정에서 중국인의 의사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야 했기 때문이다. 필체로 조선인이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내용의 사실여부를 중국인에게 더 탐문하겠다는 말에 그렇게 하라고 전교를 내린다. 이 기록에서 강항에 대한 신분조서가 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중국 사절단이 일본에서 만난 강항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데, ‘강항은 여전히 조선의 의복을 입고 적에게 굴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충신’이라고(且言:姜沆猶着朝鮮衣服,不屈於賊,眞箇忠臣) 절찬하고 있다. 강항의 이런 일본에서의 모습은 해사록(『海槎錄』)에서도 ‘왜인들의 말에 의하면, 강항이 포로되어 온 지 5년 동안 형체를 고치지 않고 의관을 변하지 않으면서 방에 조용히 앉아 책이나 보고 글을 짓기만 일삼고 운운(倭中言,姜沆作俘五歲,不毀形體體,不變衣冠,靜處一室,只以看書綴字爲事)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강항은 일본에 억류되어 있으면서도 선비의 의지와 체통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알 수 있다.

드디어 강항이 부산에 도착하였지만 고향으로 가지 않고, 먼저 조정에 알려 한성으로 올라간다. 조정에서는 가장 궁금한 일이 일본의 재침여부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강항은 들은 대로 상啓를 하였다고 ③선조 33년 경진(1600년) 6월 9일(경진)에 기록되어 있다. 승려 순수좌는 家康의 말이라며 내년엔 다시 거사하려고 한다. 하였으나, 또 한편 다른 사람은 왜인들은 서로 사소한 일로 다투고 있어 걱정이 집안에 있는데 어느 겨를에 눈을 다른 데에 돌리겠는가. 하며 전쟁은 없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며 아울러 서계하였다는 것이다.

6일 후인 ④선조 33년 경자(1600, 만력) 6월 15일(병술)에 순조가 남도순찰을 하고 돌아온 都元帥議政府左議政 李恒福을 인견하고 동부승지 민중남 등과 함께 대마도 기습을 논할 때, 항복이 강항이 나왔으니 틀림없이 적의 실정을 알 것이라고 말하니 상이 “강항이 어떻게 알겠으며 그의 말을 어떻게 다 믿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한다. 항복이 답하기를, “어리석은 백성들이 들은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라고 한다. 또 상이 이르기를, “그에게 하문하였으나 동병(動兵)의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민중남이 답하기를, “왜적 중 가강(家康)이란 자가 있는데 청정(淸正)과는 다르다고 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강항이 잘 모른 것이다. 왜적의 간사한 꾀는 그 부하 졸개도 오히려 모르는데 강항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한다. 위의 질의응답에서 항복과 민중남은 강항의 의견을 기대하고 있으며, <적중봉소> 숙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조는 위의 6월 9일(경진)의 강항의 재침·불가침 의 양쪽 의견을 들어서인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67) 麗羅 25)와 같음.

그리고 약 40일 후에 ⑤선조 33년 경자(1600) 7월 24일(을축)에 병조가 아뢰기를, “북도의 城制를 한결같이 倭城에 의해 개축하라고 승전(承傳)하였습니다. 포로가 되었다가 나온 사람들 중에도 전 좌랑(佐郎) 강항(姜沆), 부장(部將) 손문옥(孫文彥) 등은 오랫동안 왜중에 있었으니, 필시 일본의 성지(城池)와 기계에 대해 상세히 알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북병사의 군관이란 칭호를 주어 내려 보내 제진(諸鎭)을 출입하면서 가르치게 한 이후 만약 성과가 있으면 그대로 본도의 변장(邊將)으로 차임하여 그 노고에 보답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성제를 왜성에 의해 개축하라고 전승했다는 것이다. 조선의 성에 대한 문제는 강항이 <賊中封疏>에서 왜성의 성터·위치·구조·성주의 자질 등에 대해 조선과 비교하면서 일본성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선조의 왕명으로 성의 개축을 왜식으로 하라고 전교와 함께 강항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위의 기록은 강항의 장문으로 올린 성의 개축에 대한 제안이 현실화 되어 나타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강항 등을 현지에 보내어 가르치도록 했지만, 강항의 부임여부는 언급이 없다.

다음은 정유란이 끝나자 강화를 맺자고 對馬島로 부터 청원이 오면서 강항 등의 출국이 자신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⑥선조 34년 신축(1601) 4월 25일(임진)의 기록이다. 전쟁이 끝난 후 대마도주 平義智가 거짓으로 말하기를 지난 경자년에 강항을 내보내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을 많이 내보냈는데도 아직까지 강화를 허락할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기록에서 대마도주 平義智가 거짓으로 말한다고 하였다. 강항의 상소에 대마도의 거짓 수작에 넘어가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염두에 둔 위의 기록인 것 같다. 이 화평제약은 1598년(선조31년, 慶長3년) 8월 18일 秀吉이 병사한 후 약 2년 8개월이 경과한 후이며, 동년 11월 25일 行長(島津)義弘 등이 마지막으로 철수함으로써 정유재란의 막을 내리게 된 지 2년 5개월이 지난 후이다.

⑦선조 34년 신축(1601) 5월 13일(경술)에는 지난 정유재란 때에 공을 세운 공신의 호칭에 대해 선조가 비망기로 전교할 때에 일본군의 숫자를 1백만이라고도 하였다는 말에 주를 달아, 강항의 상소에는 30만 뿐이 아니라고 하니 좀 더 상고해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다. 기록관은 강항의 상소문을 상기하면서 일본군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날의 기록에서 왜장 行長の 말을 인용하고 있다. 조선은 멸망시킬 수 있지만, 그 땅은 차지할 수 없다고.( 行長曰: "朝鮮可滅, 而其地不可有" 云)

⑧선조(수정실록) 20년 정해(1587) 9월 1일(정해)

일본 국사(日本國使) 梶川康廣(橘康廣)이 내빙(來聘)하였을 때, ‘일본은 찬탈하고 임금을 시해한 나라이므로 보내온 사신을 예의로서 접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은가’ 라고 논의를 하지만, 수길 이 어떻게 關白이 되었는지 몰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강항 등이 돌아와서 수길이 찬탈하기는 하였으나 곧 반역 토벌을 명분으로 삼은 것이지 스스로 시역을 행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강항은 <壬辰丁酉入寇諸將倭數>에서 信長가 明知에게 암살당하고 秀吉가 明知를 참살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강항은 秀吉에 대해 秀吉의 묘에 가서 낙서를 할 정도(전계) 원망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을 전하는 데는 왜곡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실록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⑨ 선조(수정실록) 26년 계사(1593) 6월 1일(갑신)의 기록은 임진왜란(文祿の役) 때, 격전지

이었던 진주성의 전투에(죽은 자가 6~7만 명이라고 전한다) 조선의 용장들이 많이 죽었기에 왜인이 강항에게 말하기를 ‘조선의 장사들이 진주성에서 다 죽었으니, 이후로는 우리를 괴롭힐 자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이 말은 강항이 전한 것이었겠지만, 김천일의 죽음에 대한 주에 기록된 기사이다.

강항은 귀국후 향리에서 은거 생활을 하며 후진양성에 노력하다가 1618년 5월2일에 세상을 떠났다. 향년 52세였다.

강항의 행장을 보아도 귀국 후에는 거의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못 사람의 눈이 흘겨 보기만 하여 모두가 유여(劉與)의 부(賦)를 싫어만 하니 운운’ 이라 하여 강항이 은거생활을 한것이 마치 주위의 혈뜬음 때문인 것처럼 기술되어 있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강항이란 인물을 생각할 때 강항의 입장에서 서서보아야 되지 않을까. 강항의 가족을 죽인 사람도 일본사람이고, 살아남은 강항의 가족을 살렸던 사람도 일본사람이다. 어떻게 관리가 되어 일본을 적대시하는 입장에 설수 있단 말인가, 죽음을 몇 번이나 넘기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면서 버티어온 사람이 그깟 풍설에 좌우될 인간은 아닐 것이다. 강항이란 인물의 심중의 복잡함을 이제는 역사로부터 분리시켜 한 인간으로서 삶의 참 모습을 생각해볼 때도 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별세 후 50년이 지난 ⑩현종 9년 무신(1668, 강희) 4월 13일(신사)에 조정에서 강항을 당상(堂上)으로 追贈하라고 명한다. 그리고 강항은 임진왜란 때 호조의 낭관으로서 호남 지방에 갔다가 왜적에게 포로가 되어 일본에서 10여 년을 살았고, 본국으로 돌아와서는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였으나 선정(先正)의 여러 신하들이 그의 절의에 대해 많이들 칭송하였으며, 그가 지은 《간양록(看羊錄)》이 세상에 전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글은 강항을 당상으로 추증한 이유로 언급된 것 같다. 여기서 『간양록』이 높이 평가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관은 ‘삼가 살펴보면, 강항은 임진왜란을 당하여 왜적에게 포로가 되어 고용살이를 하다가 쫓겨났고, 이에 왜적의 자제들을 모아 글을 가르쳐 주고 쌀을 받아 살아가다가 십여 년이 지난 뒤에 배를 훔쳐 타고 도망쳐 왔는데, 선조께서 버려둔 채 등용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를 일러 왜적에게 항복하였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나, 그에게 무슨 칭할 만한 절의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이단하는 당론에 병 들어서 감히 추증하기를 청하였으니, 참으로 《논어》에서 말한 ‘내가 누구를 속이겠는가. 하늘을 속이겠는가.’ 하는 것이다.’ 라고 추기 하고 있다. 억류기간을 10년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전개한 사서오경들을 정사하여 받은 사례를, 자제들을 모아 글을 가르쳐 주고 쌀을 받아 살아가다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정식 허가를 받고 藤原惺窩·廣通들의 도움으로 배를 얻어 귀항길에 올랐는데, 배를 훔쳤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 기록관들도 강항의 <賊中封疏>를 읽었던 것은 틀림없다. 경서의 정사를 통해 돈을 번 일이라든 배를 얻어 귀국길에 오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개찬한 기록을 보면, 악의의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⑩ 현종개수실록 19권, 현종 9년 4월 13일辛巳에서는 강항의 ‘온 집안이 왜적에게 잡혔는데, 여러 차례 죽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일본으로 잡혀가서는 몰래 납서(蠟書)로써 왜적의 동태를 알렸으며, 모습을 저들처럼 바꾸어 훼손시키거나 의관을 바꾸지 않은 채 지내었는데, 4년이 지난 경자년에 왜인들이 비로소 귀국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선조가 불려서 서울에 도착하자, 왜적의 정세에 대해 두루 물어보았으며, 이어서 술을 하사하고 말을 지급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명하였다. 그 뒤에 회답사(回答使) 여우길(呂祐吉) 등이 일본에 갔을 때 왜인들이 그의 절의를 몹시 칭찬하였는데, 심지어는 소무(蘇武)와 문천상(文天祥)에 게 비교하기까지 하였다.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이 이를 듣고서 가상히 여겨 탄

식하였으며, 당로자에게 글을 보내어 그를 거두어 서용하기를 권하였다. 그러나 당론이 한창성한 때라 끝내 폐기된 채로 생을 마쳤다. 그가 지은 《수은집(睡隱集)》·《간양록(看羊錄)》 등의 서책이 세상에 전한다'고 하여 전혀 다른 평가로 추증의 이유를 기술하고 있다. 조정에서 내린 객관적 역사기록인 『조선왕조실록』에서조차 당파에 의한 의도적 왜곡이 <개수실록>에 의해 바로잡힌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강항의 당상으로서의 추증은 정당한 평가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역사에 남기는 기록이 되었으며, 이 후 강항에 대한 왜곡은 나타나지 않는다. 강항의 조선·조국에 대한 일념은 충절로 표현되고 있지만, 추증과 용주사의 건립 등으로 조금이나마 그의 넋을 달래게 되었다.(강항의 연보에 의하면, 1882년 추증되어 자헌대부·이조판서·양관대제학이 되었다고 한다)<sup>68)</sup>

## 6. 맺는말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간양록』에서 임진왜란은 秀吉이 다른 왜장들의 병세를 소모시키어 자신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 전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 2) 『간양록』에서 강항은, 秀吉의 명령에 의해 조선을 침략한 왜장중에는 光通과 같이 공자묘를 세우고 조선의 제복·제관을 입고 제의를 익히려는 왜장도 있고, 전란에 의한 고난의 백성을 구제하려고 하는 지식인 중에는 순수자와 같이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양심적인 인물도 있다고 일본 비평을 하고 있다.
- 3) 강항으로 부터 주자학의 영향을 받은 藤原惺窩가 강항을 스승(師)으로 표현한 시기는 사서 오경의 왜훈독이 끝난 후 즉 강항이 <五經跋>을 적은 慶長 4년(1599)2월 이후로 본다.
- 4) 藤原惺窩가 四書五經의 경문에 宋儒의 뜻으로서 倭訓을 달아 만든 책은 일본에서 宋儒의 뜻을 담은 최초의 책이고, 유학의 일반화를 개척하는 일이 되어 藤原惺窩를 江戸유학·주자학의 개조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되지만, 姜沆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대업이다. 藤原惺窩에 있어서 강항은 「師右」(太田兵三郎)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다.
- 5) 강항이 藤原惺窩로부터 얻은 일본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간양록』에 투영되어 있으며, 조선의 문인들과 조정에서 일본에 관한 참고서처럼 쓰여지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시대에 간양록이 갖는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할수 있다.
- 6) 『간양록』의 내용과 구성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 있어서 秀吉에 대해 기사는 강항의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냉철하고 깨끗한 정신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

68) 61)과 같음.

## 【부록】 일본에서의 강항·『간양록』 연구논저목록

### 1) 『간양록』의 일본어 번역

- ① 朝鮮研究會 『角干先生實記·看羊錄·東京雜記』 朝鮮研究會, 明治44년(1911).
- ② 『日本庶民生活史料集成』 三一書房, 1981년.
- ③ 朴鐘鳴譯 『看羊錄-朝鮮儒者の日本抑留記』 東洋문고, 1984년.

### 2) 姜沆 관련 일본사료

- 『藤原惺窩集』 卷上·下. 國民精神文化文獻 第17, 國民精神文化研究所, 1939년  
『藤原惺窩集』 卷上에는 강항의 「是尙窩記」·「惺齋記」 등이 게재  
『藤原惺窩集』 卷下에는 「姜沆筆談」·「朝鮮役捕虜との筆談」 등이 게재  
『藤原惺窩·林羅山』 日本思想大系. 岩波書店, 1975년.  
「羅山先生文集」 안에 「藤原惺窩先生行狀」  
『歷代名醫傳略』 (1598년3월12일)의 서문(姜沆) <사진본>  
<http://dl.ndl.go.jp/info:ndljp/pid/2535657>

### 3) 강항과 『간양록』에 관한 연구

#### 【논문】

- 松田甲 「<內鮮儒學關係> 藤原惺窩と姜睡隱」 (『朝鮮』 119, 朝鮮總督府, 1925년3월12일)  
松田甲 「藤原惺窩と姜睡隱の關係」 『歴史地理』 53(1), 日本歴史地理學會編, 1929년 1월  
阿部·吉雄, 「藤原惺窩の儒學と朝鮮-姜沆の彙抄十六種の新調査にちなんで」 (『朝鮮學報』 12, 朝鮮學會, 1958년3월)  
宋兢燮 「睡隱姜沆と藤原惺窩の朱子學」 上·中·下 『月刊 韓國文化』 41, 42, 44 韓國文化院監修, 1983년2월, 3월, 5월  
吾妻·重二 「江戸初期における學塾の發達と中國·朝鮮-藤原惺窩、姜沆、松永尺五、堀杏庵、林羅山、林鵝峰らをめぐって(特集 周縁から見た中國文化)」 (『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 2 關西大學文化交渉學教育研究據点, 2009년3월)  
姜在彦 「日本の江戸儒學と姜沆」 (『Koreana : 韓國の文化と芸術』 韓國國際交流財團, 1992년3월)  
崔京國 「姜沆「看羊錄」-抑留された朝鮮儒者の日本觀」 (『國文學 - 解釋と鑑賞』 60(3), (766), 至文堂, 1995년 3월 )  
高野澄 「<秀吉の素顔> 抑留者姜沆の密書が明かす秀吉」 (『歴史と旅』 23(12), (353), 秋田書店, 1996년8월)  
桂島宣弘 「姜沆と藤原惺窩 -17世紀の日韓宗土總合認識」 (荒野泰典, 石井正敏, 村井章介編 『日本の對外關係 5 (地球的世界の成立)』 吉川弘文館, 2013년)  
金仙熙 <十七世紀初期李朝知識人の抑留記にみる他者像——姜沆の《看羊錄》·鄭希得の《海上錄》·魯認の《錦溪日記》を中心に>, 《廣島大學日本語教育研究》 11 期(2001 年)  
桂島宣弘 「姜沆と藤原惺窩-十七世の日韓相互認識」 『歴史を通して「他者」と向き合う』 太陽出版, 2019年, 所收

#### 【저서】

- 井上哲次郎 『日本朱子學派之哲學』 富山房,明治38年(1905).  
 이 책은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다. <http://dl.ndl.go.jp/info:ndljp/pid/1914012>
- 徳富猪一郎 『文録慶長以後日本に於ける朝鮮の感化』 中央朝鮮協會,1930年  
 「捕虜姜沆と藤原惺窩」
- 徳富猪一郎 『修史余課』 民友社, 1931年  
 「壬辰役の戦利品としての朝鮮本」, 「姜沆と藤原惺窩」
- 松田甲 『日鮮史話 續』 第1編,朝鮮總督府,1931年  
 「藤原惺窩と姜睡隱の關係」
- 阿部吉雄 『日本朱子學と朝鮮』 東京大學出版會, 1965年  
 「惺窩の新儒學唱道と姜沆」, 「姜沆彙抄十六種について」
- 『朱子學大系』 第13卷(日本の朱子學 下) 明德出版社, 1975年  
 「朝鮮の姜沆に簡す」, 「姜沆に問ふ」「姜沆に答ふ」
- 内藤雋輔 『文祿・慶長役における被擄人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76 年  
 「姜沆と간양록」
- 麗羅 『人物韓國史』 下, 徳間書店,1989年  
 「姜沆-壬辰倭亂で日本の捕虜となった悲劇の詩人」
- 村上恒夫・辛基秀 『儒者姜沆と日本 -儒教を日本に傳えた朝鮮人』 明石書店,1991年
- 金兩基 「姜沆と藤原惺窩-朝鮮朝儒教との出会い」 (『韓國 (讀んで旅する世界の歴史と文化)』 新潮社,1993年)
- 村上恒夫 『姜沆-儒教を伝えた虜囚の足跡』 明石書店,1999年
- 金仙熙 『近世日朝知識人の自他認識』 -十七-十八世紀の朱子學者を中心に』 (廣島大學 博士學論文,2003年)
- 柳哲雄 『姜沆-宇和島城と豊國神社に落書きをした儒學者』 創風社出版、2008年
- 歴史學研究會 『世界史史料 12 (21世紀の世界へ 日本と世界 16世紀以後)』 岩波書店, 2013年  
 「鮮儒學者姜沆(カンハン)の日本俘虜記 (一六五六年)」
- 姜健榮 『望郷の被虜人と渡來文化』 かんよう出版, 2018.年  
 「儒學者姜沆と藤原惺窩の交流」
- 【隨想】**
- 羽倉信也 「藤原惺窩と姜沆-江戸朱子學と朝鮮儒教の關わり」 (『斯文』 103,斯文會, 1995年3月.